

◆ 이렇게 활동했습니다 •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 뒤에 가려진 2024년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예산 삭감과 정부 주도의 여성폭력 상담소 통합합·동의'를 질문하며, 위험 너머 나아가는 여성들 • 친족성폭력에 대항하는 방법 : 관계를 새로 짓기, 사회를 재조직하기 ◆ **뭔다!상담소** ◆ 2023 상담통계 ◆ 열림터 다이어리 • 성폭력 피해자 쉼터, 새로운 함께 살기를 찾아서 ◆ **생존자의 목소리** • 피해자에서 연대자로 • 소박한 일상으로 한걸음이 되기까지 ◆ 성문화 읽기 • '흥기난동' 사건을 바라보는 반성폭력 활동가들의 이야기 • 보호출산제, 그것이 알고싶다 • 4,765건의 강간 상담이 들려준 이야기 : 전국성폭력상담소 2022 폭행협박없는 성폭력 통계분석 ◆ **시골시골 상담소** • 답답한 세상, 우리는 혼자 아니니까! ◆ **아낌없이 주는 나무** ◆ **훈훈한 기부**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까지 앞으로 D-37일

한국성폭력상담소는 페미니스트들이 모이는 콩깍지 팻(pod)으로써 페미니스트 주권자가 어떤 정치와 사회 공동체를 그리고 어떤 일상을 꾸러가기를 원하는지 함께 얘기하고 기획하고 공부하며 시민과 함께하는 총선 대응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성평등과 공공성은 실종되고  
이권을 위한 혐오와 분란으로 점철된 현재의 정치 속에서  
나의 삶이 그저 무력하게 휩쓸릴 것 같아 우울하다면,  
후퇴하는 세상을 보며 답답하고 혼란스럽다면,  
우리가 살아갈 다른 세계를 상상하고 있다면,  
페미니스트 주권자의 힘을 보여주세요!

너부터

93

2023 하반기

퍼낸곳 (사)한국성폭력상담소

퍼낸이 김혜정

퍼낸날 2023년 3월 4일

만든이 박수민

디자인 디자인이즈

주소 (04072) 서울시 마포구 성지1길 32-42 (합정동 366-24) 2층 한국성폭력상담소

사무 전화 02-338-2890-1

상담 전화 02-338-5801

이메일 [ksvrc@sisters.or.kr](mailto:ksvrc@sisters.or.kr)

홈페이지 <http://sisters.or.kr>

---

4 **이렇게 활동했습니다**

4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 뒤에 가려진 2024년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예산 삭감과 정부 주도의 여성폭력 상담소 통폐합

10 '동'을 질문하며, 위험 너머 나아가는 여성들

15 친족성폭력에 대항하는 방법 : 관계를 새로 짓기, 사회를 재조직하기

---

20 **똥대!상담소**

---

22 **2023 상담통계**

---

28 **열림터 다이어리**

28 성폭력 피해자 쉼터, 새로운 함께 살기를 찾아서

---

33 **생존자의 목소리**

33 피해자에서 연대자로

38 소박한 일상으로 한걸음이 되기까지

---

42 **성문화읽기**

42 '흥기난동' 사건을 바라보는 반성폭력 활동가들의 이야기

50 보호출산제, 그것이 알고싶다

55 4,765건의 강간 상담이 들려준 이야기 : 전국성폭력상담소 2022 폭행협박없는 성폭력 통계분석

---

59 **시끌시끌 상담소**

59 답답한 세상, 우리는 혼자 아니니까!

---

63 **아낌없이 주는 나무**

---

68 **훈훈한 기부**

---

##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 뒤에 가려진 2024년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예산 삭감과 정부 주도의 여성폭력상담소 통폐합

란 |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일곱 글자로*

*여성 인권에 대한 몰이해를 드러냈던 윤석열 정부.*

*그 무지함과 무책임함이 정책에도 고스란히 묻어나는데요.*

*시민의 힘으로 일궈낸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를 강화하기는커녕,*

*'부실 사업'이라 이름 붙이고는 일방적으로 구조조정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2024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재정 운용의 효율화와 건전성을 내세워 부실사업에 대한 구조조정 계획을 밝혔다. 이를 통해 확보된 재원은 '약자복지 강화 및 미래 준비를 위한 투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 국가의 본질기능을 뒷받침'하는 등 4대 집중 정책 분야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밝힌 부실사업에는 여성폭력 피해자지원 사업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예산은 2023년 대비 120억 원 감축되었다. 2023년 대비 정부가 내놓은 여성가족부 예산안 감액 명세는 다음<sup>1</sup>과 같다.

1) 김혜정·송관희(2023), 젠더기반 여성폭력 총선 정책 제안 토론회 발제문

〈표1〉 2024년 여성가족부 예산안 전액 삭감 명세- 총 3,974백만 원

단위: 백만 원

내역사업명 (또는 내내역사업명)	23년 본예산 (A)	24년 정부안 (B)	증감액 (B-A)	감액 사유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콘텐츠 제작	996	0	-996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 착취 예방 교육 홍보(신규, 2억)사업으로 연계 및 기 개발 콘텐츠 활용
가정폭력 가해자교정치료프로그램	791	0	-791	유사·중복 사업으로 법무부로 일원화
성 인권 교육 운영	556	0	-556	사업 수요 감소, 성문화센터 성교육 및 복지부 사업(발달장애인 성교육)과 유사성 등으로 감액 ※ 학교 재정으로 요청 시 청소년성문화센터를 통해 지원 가능
성범죄자 재범방지 교육	524	0	-524	부정수급 발생, 수강명령 집행을 담당하는 법무부로 추진체계 일원화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인식개선 및 홍보	300	0	-300	기 제작 홍보 콘텐츠 활용
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지원 - 지역권익보호기관 시범 운영	217	0	-217	지자체 수요부족으로 중앙권익보호기관 중심으로 운영 전환
조직문화개선 교육 프로그램 운영	200	0	-200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 사업과 통합하여 효율적 사업 운영
가정폭력 예방·홍보	82	0	-82	스토킹 예방·홍보 사업과 통합운영
중앙인신매매 등 피해자권익 보호기관 운영	80	0	-80	사업 운영 방식 변경 / (진흥원 출연사업 → 여성가족부 보조사업)
이주여성 인식개선 및 폭력피해 예방 홍보	76	0	-76	기 제작된 홍보자료 활용
북한이탈여성 폭력피해 예방 및 지원	58	0	-58	23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 실효성 제고 차원에서 추후 전문교육기관위탁수행 검토
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지원 - 지역피해자지원사업 위탁연구	50	0	-50	지역 권익 보호기관 미설치로 관련 연구 수요부족으로 순감
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지원 - 피해자지원 협업프로그램 운영	44	0	-44	지자체 수요부족으로 중앙권익 보호기관 중심으로 지원

〈표2〉 2024년 여가부 예산안 부분 삭감 내역 - 총 8,059백만 원

단위: 백만 원

내역사업명 (또는 내내역사업명)	23년 본예산(A)	24년 정부안(B)	증감액 (B-A)	감액률	감액 사유
가정폭력·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지원 - 가정폭력상담소운영	11,637	8,440	-3,197	-27%	여성폭력 피해 개별상담소를 통합상담소로 개편 추진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사업	2,255	1,249	-1,006	-45%	-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등 지원	4,341	3,536	-805	-19%	집행을 반영 및 부정수급 발생에 따른 사업 효율화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의료비 등	1,853	1,156	-697	-38%	-
신상정보 고지 제도 운영	4,377	3,934	-443	-10%	고지대상자 및 고지 대상 세대수 감소 및 모바일 고지 열람률 증가 등 반영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 - 피해자기념사업	720	320	-400	-56%	‘한국여성인권진흥원’으로 이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13,644	13,254	-390	-3%	입소를 저조 등 23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에 따른 지원단가 조정
성매매 집결지 현장지원사업	946	670	-276	-29%	-성매매 방식·환경의 급속한 변화나 집결지 추이 등을 고려하여 내역사업 규모 조정
성매매 피해자 지원 시설 및 상담소 운영	14,464	14,261	-203	-1%	23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지원실적 등 반영
성폭력 피해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 지원	14,377	14,181	-196	-1%	지역 수요 고려
성범죄 예방 및 홍보	704	608	-96	-14%	3년 주기 성착취물 실태조사(23년)에 따른 감액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 - 생활안정지원	681	590	-91	-13%	지원 대상자(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감소에 따른 감액(11명→9명)
신상정보 인터넷 공개 제도 운영	339	264	-75	-22%	기 제작한 공개·고지 홍보영상 활용
인신매매방지 홍보	150	80	-70	-47%	기 제작 콘텐츠 활용
가정폭력·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지원 - 폭력피해여성주거지원운영	1,105	1,041	-64	-6%	-
인신매매방지 교육	50	22	-28	-56%	기 제작 교육자료 개정 등 보완
성범죄자 취업제한 및 신고의무 제도 운영	172	154	-18	-10%	관련 교육 시 기존 자료 활용
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지원 - 피해자지원기관협의회 운영	9	5	-4	-44%	지자체 수요부족으로 중앙권익 보호기관 중심으로 지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여성가족부 예산안은 2023년 12월 21일 국회 본회의 심의과정에서 82억 원가량 증액되었으나(2023년 대비 9.9% 증가한 11조 7,234억 원으로 확정), 여성폭력 피해자지원 예산의 삭감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증가한 여성가족부 예산안의 약 70%(1조 1,969억 원)는 가족 정책 사업에 편성되었다.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예산은 8억 500만 원 줄었고, 성인권 교육 사업과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콘텐츠 제작, 디지털 성범죄 특화 프로그램 운영, 이주여성 인식개선 및 폭력피해 예방 홍보사업 예산 등은 전액 삭감된 채 통과되었다.

노동자들이 직장에서 겪는 성차별, 성희롱을 상담해 온 고용노동부 소관의 고용평등상담실 역시, 운영 예산인 고용평등상담 지원예산이 전액 삭감된 채 예산안이 통과되었다. 정부는 2023년 12억 1,500만 원이었던 고용평등상담실 운영 예산을 2024년 5억 5,100만 원으로 삭감하며, 민간 고용평등상담실을 지원하는 대신 전국 지방고용노동청이나 본부 등에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24년간 민간영역에서 운영되어온 고용평등상담실 운영 지원예산의 전액 삭감이지만, 여성 노동자들이 사직서를 쓰기 전에 상담할 수 있는 창구인 민간 고용평등상담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후원과 응원으로 중단되지 않고 운영될 예정이다.

여성폭력 피해자지원 예산안이 대폭 삭감된다는 계획이 알려지고 나서 여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현장들은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예산 감축 철회 촉구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을 발족하여 2023년 10월 30일 국회 앞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1만인 시민 선언,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면담, 정당 원내대표 면담, 여성가족부 공개질의서 발송 등을 통해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예산 감축 철회를 요구했다. 공동행동은 12개의 여성폭력피해자 지원 협의회 및 연대체가 함께 했는데, 가정폭력상담소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

설, 디지털 성폭력 피해지원 상담소, 성매매 피해상담소와 자립 지원 공동 생활시설과 성매매 피해자 보호시설, 성폭력상담소, 이주여성상담소 및 이주여성보호시설, 여성장애인폭력피해지원 상담소 및 여성장애인폭력피해 보호시설 등,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현장의 모든 분야가 함께 했다. 분절적으로 운영되는 피해유형별 지원시설이 안정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지 못해 통합상담소가 필요하다는 정부의 평가와 달리, 민간영역의 여성폭력 피해자지원 현장단체들은 함께 모여 한목소리로 정부주도의 통합체계 구축에 반대했다. 오히려 영역별 지원현장에서의 활동이 이미 통합적인 지원을 하고 있기에 현장에 대한 기능적이고 물리적인 통폐합이 아니라 민간 거너번스를 바탕으로 한 통합지원의 상을 그려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러한 현장단체들의 의견은 끝내 여성가족부에 전달되지 못했다. 공동행동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면담을 요구했으나 두 차례에 걸쳐 거절되었다. 여성가족부는 이미 국별로 현장단체의 의견은 수렴했고, 국회에 예산안 심의가 넘어갔으니 면담조차 할 필요가 없다고 회신했다.

2024년에는 가정폭력상담소(30개소)를 통합상담소(25개소)로 전환하며 5개소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지만, 점차 분야별 상담소를 통합상담소로 점진적으로 전환하고 있다. 통합 과정에서 보조금을 중단하는 상담소가 발생할 수 있다는 계획이 들려오고 있다. 동시에 지자체별로 자체 위탁 운영하는 여성폭력 통합센터들이 잇달아 개소하는 소식도 들려온다. 효율과 재정 건전성, 비영리민간단체의 보조금 관리 강화라는 논리로 그간 민간영역에서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왔던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현장이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위탁 직영센터로 대체되고 보조금 지원을 발미로 줄 세우려는 정부 차원의 계획이 가시화되고 있다.

1991년 4월 한국성폭력상담소가 개소했을 때, 성폭력상담소 설치 근거를 담은 성폭력 특별법은 없었다. 24시간 피해자를 상담하거나 피해상담 즉시 경찰, 병원, 법률전문가와 연계하여 응급조치, 법적 고소를 위한 증거 채취, 법률적 지원을 하는 긴급하고 통합적인 지원체계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1993년 12월, 한국성폭력상담소가 주축이 되어 국민 모금으로 설립기금을 마련하여 개소한 '성폭력 위기센터'가 처음으로 24시간 성폭력 피해자 상담을 하고 긴급하고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만들었다. 현재 전국에 170여 곳이 되는 성폭력상담소에 대한 국가지원의 근거를 담은 법 제정도 민간영역의 여성단체들이 성폭력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법 제정에 역할을 했기에 가능했다. 강조하자면 현재 한국의 여성폭력 지원체계는 여성폭력이 국가적 책임에서 다뤄져야 하는 사회적 문제라는 것을 알고 함께 힘을 보태 정부의 책임과 국가지원의 토대를 촉구한 시민들의 참여와 요구로 마련된 것이다. 여성폭력 피해자지원에 공백이 없으려면 정부는 지금이라도 민간영역의 현장단체들과 지원체계의 구체적인 통합지원의 상을 함께 그려나가야 한다. 시민을 배제한 일방적인 정부 주도의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통폐합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 

젠더기반 여성폭력 총선 정책 제안  
토론회(2023.12.19) 자료집 보러가기 ▶



# ‘동의’를 질문하며, 위험 너머 나아가는 여성들<sup>1</sup>

신아 | 성문화운동팀 활동가



*우리 사회는 여전히 성에 있어 수동적이고 순종적인 여성을 원합니다.  
하지만 여기, 때로는 강요와 좌절, 때로는 존중과 기쁨을 느끼며  
누구보다 주체적으로 ‘동의’를 탐구하고 시도한 여성들이 있는데요.  
이들의 이야기는 동의 담론에 무엇을 남겼을까요?*

2023년 상반기 ‘성적 동의’는 뜨거운 이슈 중 하나였다. 1월 말, 여성가족부의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있던 ‘비동의 강간죄 검토’ 과제가 법무부의 반대로 9시간 만에 철회되는 일이 있었다. 남초커뮤니티 이용자들부터 법무부 장관에 이르기까지 ‘동의’ 여부가 강간의 판단 기준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반박하며 나섰다.

이 시기 확산된 반대 근거 중 하나는 여성이 동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다고 변심하거나 무고할 의도로 말을 바꾸면, 남성이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2023년 6월 유

1) 이 글은 일다에 게재된 “성관계에서 ‘동의’를 둘러싼 여성들의 경험과 시도/강요되고 좌절했던 경험부터 적극적 합의 모색까지”를 편집하였습니다. 전문 읽기: <https://www.ildaro.com/9813>

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비동의 강간죄 도입을 반대하며, 비동의 강간죄가 “입증 책임을 사실상 피고인에게 전가시키고, 여성의 의지나 능력을 폄하할 여지가 있다”는 서면 답변을 제출했다.

실제로는 최근의 국내 판례들을 비롯해 해외 입법례와 국제인권기구의 보고서들까지, '동의를' 판단하는 기준은 풍부한 사례를 기반으로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강간죄 판단에 있어서 '동의를' 기준은 모호하고 위험하다는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린다. 때리고 협박해서 제압하지 않았다면, 여러 사유로 여성의 의사가 무시되어도 성적자기결정권은 침해되지 않았다는 모순된 메시지가 은연중에 확산된다. 동의한 게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있는 힘껏 저항이라도 하라는 말과 다름없다. 게다가 여성은 성적 행위에서 주체가 아니라 '변심하는 존재'이자, '위험한 존재'로까지 왜곡된다.



\_ 인터뷰 결과 공유회 <동의를 질문하며, 위험 너머 나아가기 - 생애 속 '그' 섹스'들을 동의로 질문하다> 현장

비동의 강간죄와 관련하여 활발해진 ‘동의 담론’에 여성들의 목소리는 속 빠져있다.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성문화운동팀은 성적 동의를 주제로 여성들을 인터뷰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우리는 혼인, 연애, 데이트, 썸, 캐주얼 섹스 등 친밀한 관계에서 ‘동의가 고인된 적 있는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줄 여성들을 모집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생애 전반의 성적 경험을, 성폭력이라고 명명한 경험부터 난감하고 불편했지만 무엇이라고 규정하기 어려웠던 경험, 즐겁고 만족했던 경험까지 폭넓게 듣고자 했다. 연령도, 하는 일도, 성적 정체성도 다르지만 ‘동의’와 관련해서 무언가 할 말 있는 여성들 15명이 인터뷰 모집 공고를 보고 신청해주었다. 연령 별로는 10대 3명, 20대 4명, 30대 4명, 40대 2명, 50대가 2명이었으며, 혼인 경험이 있는 참여자는 3명, 비이성애(범성애, 동성애, 무성애 등) 참여자가 4명이었다.

친밀한 관계에서의 실험과 모험, 상처, 실패, 즐거움, 존중, 깨달음 등 저마다 고유한 이야기가 펼쳐졌다. ‘동의’에 대한 특정한 에피소드만 다루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인터뷰에 할당된 2시간은 늘 짧았다. 각기 다른 여러 이야기가 쌓여가면서 공통된 그림이 그려졌다. 여성들은 당시 상황이나 관계 자체의 위계 때문에 다른 선택지가 없었던 섹스, 연인이나 부부처럼 친밀한 관계에서 몸과 감정을 살필 틈 없이 해야하니까 했던 섹스, 여성의 쾌락과 즐거움은 배제된 시나리오를 수행한 섹스, 친밀함을 기대했지만 섹스만 요구되었던 경험을 ‘동의’라는 키워드로 질문했다.


한 인터뷰 참여자는 바쁜 남자친구의 일상에 맞춰 자신의 자취방에서 패턴처럼 했던 섹스에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서 추방당하는 느낌’을 설명했

다. 인간으로서 자신의 몸과 경험에서 주도권을 잃고 소외될 때의 느낌을 말한 것이었다. 이런 경험의 연장선에서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등의 폭력이 인터뷰 참여자들에게도 존재했다. 일터에서의 성폭력이 성차별적인 조직 문화와 업무에서 비롯되듯이, 친밀한 관계에서도 폭력은 상호적인 관계 맺기가 깨진 곳에서, 개인의 감정과 의사와 몸이 통합된 존재로서 존중받지 못한 맥락에서 비롯되었다.

여성들의 경험이 실패와 상처로만 점철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성적 실천은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었지만 우리가 만난 여성들은 '매번 성폭력만 있겠어?'라고 반문하며 어떤 때는 오히려, 포기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나에게 대해 알아가고 싶은 욕망으로 성적 실천과 관계를 이어갔다. 그 과정에서 '동의'에 대한 통찰력 있는 발견이 이루어졌다. 인터뷰 참여자들은 '적극적 합의'는 나의 의지 뿐만 아니라 상대의 의지도 있어야 한다는 것, '동의'는 계약서처럼 한 번 정해두면 끝이 아니라 달라진 상황과 맥락 위에서 실행되는 구체적 행위이기도 하다는 것, '동의'를 둘러싼 갈등은 관계 내 힘의 불균형에 대한 성찰을 필요로 한다는 것, 성적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나 스스로가 힘을 가진 상태와 위치에 있다는 것이 '동의'에서도 중요하다는 것 등을 경험적인 지식으로 만들어가고 있었다. 15명의 인터뷰 참여자뿐만 아니라 현실 속 많은 여성들이 친밀한 관계에서 '동의'를 시도하고, 자신이 원하는 조건과 관계를 구성해나가고 있을 것이다.

성적 동의도, 성적 권리도 관계 안에서 실천되고 보장된다. 법제도라는 틀이 개인들의 인식을 만들어내기도 한다는 점에서 '비동의의 강간죄'는 어서 도입되어야 한다. 상호 성적 행위에서 '상대의 동의'는 필수적이고, 상대의 의사는 존중해야 한다는 상식, 어떤 위치에 있고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언어

를 쓰긴, 모든 사람들은 동의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더욱 확실하게 자리잡게 할 것이다.

이번 인터뷰에서 담아내지 못한 다양한 몸과 조건에서 살아가는 이들의 성적 동의 이야기가 궁금하다. 익숙한 섹스 각본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서로의 취약성을 공유하고 살피는 대화가 가능한 섹스에 대해서, 협상과 선택 앞에서 무력하지 않고 힘이 있는 상태에 대해서, 상대의 의사를 무시하지 않는 방식의 성적 규범과 실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보자. 

인터뷰 결과공유회(2023.10.26)  
자료집 보러가기 ▶





친족성폭력에 대항하는 방법

## 관계를 새로 짓기, 사회를 재조직하기

등은 | 성문화운동팀 활동가



*친족성폭력 피해생존자들에게 가족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혈연으로, 법적으로 얽힌 인연만 가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친족성폭력을 외면하는 가족중심 사회에서*

*피해생존자의 권리와 회복을 앞당길 새로운 관계를 상상해봅시다.*

2023년 상담소 활동가들과 친족성폭력피해생존자들은 친족성폭력과 정상가족이데올로기를 긴밀하게 엮어가며 다양한 자리에서 필요한 쟁점을 만들었습니다. 상반기에는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운동 전략찾기 연속 간담회를 열어, 21대 국회에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및 연장 법안이 4개가 발의되어 있음에도 법적 안정성, 형평성이라는 이름에 가로막혀 있는 현실에 개입하고자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제3회 친족성폭력피해자 생존기념 축제 <좋은 아니한 家 : '정상가족' 바깥의 우리들, 연결되자!>를 준비하여 일상적 위협과 폭력의 공간이었던 '정상 가족'을 벗어나 새로운 관계와 삶을 구축해온 우리의 생존을 축하하고, 다양한 정상가족 바깥의 존재들과 새로운 가족경험을 시도했습니다.



\_ 친족성폭력 생존기념축제

1년간의 활동은, 친족성폭력을 은폐하고 유지시키는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에 주목함으로써 피해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권리인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너머·이후에 어떤 사회를 요구하고, 누구와 함께 목소리를 낼 것인지 조직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친족성폭력 의제에 관한 문제의식을 펼쳐놓고 많은 사람과 대화한 기록을 공유합니다.

### 가족 관계 내 ‘성폭력’ 모르는 · 외면하는 사회에서 친족성폭력 드러내기

상반기 간담회는 우리사회가 가족 관계 내 성폭력을 잘 모르는 것 아닐까 질문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언론에서 친족성폭력을 다룰 때 ‘정상적인’ 가족과는 다른 일탈적인 사건으로서 선정적으로 보도하고, 이는 결과적으로 가족과 폭력의 연결점을 부인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에 더해, 국가

는 가족 내 폭력의 발생구조에 대한 이해에 기반하여 법과 제도를 만들기도, ‘가족 유지’라는 목표를 우선하면서 가족 내 성폭력을 인지하고, 고발하고, 해결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상담소는 가족제도와 정상가족 규범이 폭력을 은폐하고 유지시키는 구조임을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8월 3일에 열린 2차 간담회 자리에서 한국여성의 전화 송란희님은 이성애정상가족제도가 폭력의 정상화에 어떤 기여를 하는지 질문해야한다고 짚으며, 가정폭력대응운동 현장에서 길어온 고민을 나눠 주셨습니다. 가정폭력이 가시화되고, 가정폭력처벌법 제정이 논의되던 시기 한국사회의 반응은 정상가족제도의 실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당시 언론은 가정폭력이 법적으로 처벌해야하는 범죄가 아니라 ‘가정의 평화’라는 상호의무를 토대로 집안 내에서 ‘원만하게’ 해결해야할 일이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주장하는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국지전인데, 여기에 법이라는 핵폭탄을 쓰는 격”이라며 가부장적 구조로 인한 가정 내 폭력을 사소화하였습니다. 이처럼 가족제도는 폭력을 폭력이라고 이름붙이지 않고, 사랑이나 돌봄, 훈육 등 다른 단어로 대체함으로써 가족 내 폭력을 가능하게 하고 은폐시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을 유지시키기 위해 보상기제를 통해 제도를 재생산하기도 합니다. 가족임금, 법적 가족을 중심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방식 등으로 특혜를 주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 ‘가족이 덜 필수적인 사회’를 상상하기

이렇게 가족제도를 유지시키는 이유는 지금의 가족제도를 통해 이득을 얻는 권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7월 18일 1차 간담회에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장서연님은 ‘법이 호명하는 가족의 의미와 한계’라는 연구(가족구성권연구

소, 2019)를 통해 한국의 법에서 “선 가정 후 사회보장”의 관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법률 1,400여개 가운데 240여개에서 가족이 언급되고 있었고, 현행법은 돌봄과 부양을 가족의 기능으로 정의하며 출생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 전반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쉼터 열림터 활동가 이수님은 이처럼 복지와 보호가 가족에 묶여있을 때 가족을 고발한다는 것은 안전한 복지로부터 이탈하게 된다는 의미를 지니고, 친족성폭력 피해자들이 법적 해결과정이 종료되더라도 정상가족 밖에는 삶의 기반도 자원도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생존의 문제를 맞닥뜨리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친족성폭력피해 생존자로서 심이경님은 이를 “피해자가 생존하려면 가족 안에 머물러야 하고 성폭력에 대처하려면 가족을 떠나야 하는 모순된 상황에 놓여 있다”는 말로 설명했습니다.


송란희님은 친족성폭력을 비롯해 가정 내 폭력을 문제제기하는 운동의 핵심전략은 다른 종류의 생활방식을 배제하고 ‘가족’에 특권을 부여하는 모든 국가정책을 변화시키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정유지를 근간으로 하는 가정폭력처벌법의 목적조항을 개정하고, 사회복지정책 집행의 대행자로서 가정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등 가족이 덜 필수적일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 가족 관계 밖에서 관계 맺을 권리

수수님은 애정과 친밀성이라는 감정이 가족단위에 묶여있는 문제에도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습니다. 친족성폭력피해생존자를 지원하면서 마주하는 어려움 중 하나는 가족의 부재에서 오는 외로움을 호소할 때라고 설명하며, 사건의 법적 해결 이후에도 많

은 피해생존자는 근원적인 친밀성을 상징하는 관계를 상실했다는 생각을 극복하기 위해 분투한다는 점을 상기시켜주었습니다. 가족 관계 외의 친밀성을 우리사회가 그다지 장려하고 있지도, 구축하고 있지도 않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가족제도를 벗어나 돌봄과 애정의 관계를 만들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해주었습니다.

11월 25일 보신각과 광화문에서 진행된 친족성폭력생존기념축제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친족성폭력피해생존자에게 필요한 권리가 정책적, 의료적인 지원뿐 아니라 소통하고, 의지하고, 돌봄을 나누는 관계임을 요구했고, 참여한 생존자와 연대자들은 정상가족 관계 바깥에서 서로의 곁이 되는 공간을 직접 열었습니다. 지금까지 가족규범을 넘는 존재들은 가족제도 안에서의 불평등을 가장 먼저 체감하며 가족제도와 불화하면서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모색해온 이들<sup>1</sup>임을 기억하며 ‘이상한 정상가족’의 증언자이면서 동시에 자기 삶을 오롯이 일구어온 개척자로서의 삶을 드러내고 더 많은 바깥의 존재들이 서로 연결될 권리를 주장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친족성폭력생존자들과 상담소는 ‘그런 가족은 필요없다!’ - ‘가족해방 프로젝트’를 더 많은 시민들에게 알리고 나누며 다른 일상을 살아갈 권리의 공간을 넓혀갈 예정입니다. 많은 지지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친족성폭력 공소시효폐지운동 전략찾기> 연속간담회  
자료집 보러가기 ▶



1) 김순남(2023) 가족을 구성할 권리(혈연과 결혼뿐인 사회에서 새로운 유대를 상상하는 법), 오월의 봄

- 7월**
- 7/1 제24회 서울퀴어문화축제 <피어나라 퀴어나라>
  - 7/3~7/25 32기 성폭력전문상담원교육
  - 7/4 토론회 <준강간 사건의 정의로운 판결을 가로막는 것은 무엇인가?> 가장 보통의 준강간사건' 판결을 중심으로
  - 7/5 NO 금서, YES 필독서! 함께 읽고 이야기 나누는 릴레이 성평등 책담회
  - 7/5 모두의안전한임신중지를위한권리보장네트워크 - WTO 캐런 김 간담회
  - 7/18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운동 전략찾기 연속간담회① <가족관계 내 '성폭력'을 모르는 국가에 질문하기>
  - 7/25 기자회견 <동의는 이미 모두의 상식이다. 형법 297조 강간죄, 지금 당장 개정하라!>
  - 7/25 국회토론회 <폭행협박에서 동의여부로 : 형법 297조 강간죄 구성요건 개정 쟁점과 과제>
  - 7/26 기자회견 <유산유도제 필수약품 지정 촉구! 이것이 우리의 '사회적 합의'다>

- 8월**
- 8/3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운동 전략찾기 연속간담회② <가족해방 프로젝트>
  - 8/24 공원 여성살해 사건 피해자 추모 및 여성폭력 방지국가 규탄 긴급행동 - 성평등해야 안전하다
  - 8/25 한국성폭력상담소 2023 후원의 밤 <페미본색>
  - 8/29 10.29 이태원 참사 시정 시민분향소 지킴이
  - 8/31 복지부와 식약처의 임신중지 권리 보장 책임 방기로 야기된 권리 침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제출 및 기자회견 <정부의 임신중지 권리 방치는 인권침해다>

- 9월**
- 9/4 일본군 '위안부' 기억의 터 서울시 기습 철거 규탄행동 및 기자회견
  - 9/4 '신당역 살인사건 1주기'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
  - 9/7 제22대 총선젠더정책 라운드테이블 <제22대 국회에 요구한다! 지속 가능한 성평등 사회를 위한 총선 젠더정책 토론회>
  - 9/8 총남 공공도서관 성평등 도서 열람제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공동진정 제기 기자회견 <#유해도서\_아니고\_필독도서, 시민들의 권리와 자유 보장하라!>
  - 9/23 923기후정의행진 <위기를 넘는 우리의 힘>
  - 9/25 기자회견 <24년간 여성노동자를 지켜온 고용평등상담실 폐지, 퇴행하는 고용노동부 규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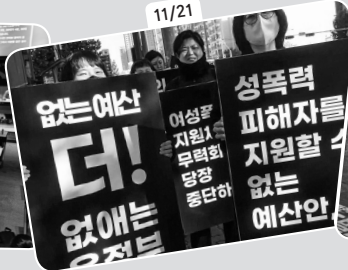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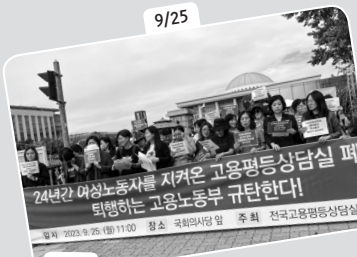


- 10월 10/5 토론회 <여성과 아동 모두를 보호하지 않는 보호출산제 : 제정법안을 둘러싼 현안과 과제>
- 10/12 활동가 재충전의 날! 한강으로 자전거 나들이
- 10/20 망국정치에 맞서는 페미니스트 릴레이 말하기 대회 <반동을 저지하며 전진>
- 10/26 인터뷰 결과 공유회 <동의를 질문하며, 위험 너머 나아가기 : 친밀한 관계에서 여성들의 성적 경험을 중심으로>
- 10/26 성소수자/HiV/감염인 처벌법 헌법재판소 선고 기자회견 <군형법 추행죄, 전파매개행위죄는 위헌이다>
- 10/30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 감축 철회 촉구 기자회견 <여성폭력 피해자지원 예산 삭감 전면 폐기>

- 11월 11/9 5년차 이하 정기후원회원 커뮤니티데이 <나만 그렇게 아니었어>
- 11/20 「성별의 법적 인정에 관한 법률안」 발의 기자회견
- 11/21 성평등 예산 삭감을 반대하는 퍼포먼스 행진&기자회견 <정부가 삭제하고 파괴한 성평등, 국회가 살려야 한다>
- 11/21 기자회견 <진도 좀 나가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임신중지 권리 보장을 위한 모자보건법 개정에 최선을 다하라!>
- 11/25 제3회 친족성폭력피해자 생존기념축제 <줄지 아니한가 : '정상가족' 바깥의 우리들, 연결되자!>

- 12월 12/1 토론회 <형사공탁 특례제도 시행 1년, 성폭력 피해자지원 현장의 목소리>
- 12/1 2023 한해보내기 <페미오락관>
- 12/5 토론회 <현장에서 볼러보는 차별금지법 - 차별금지법과 국가의 책무: 대구 이슬람사원, 대구 쿼어문화 축제를 중심으로>
- 12/15 퍼포먼스&기자회견 <안전한 임신중지약(미프진) 도입과 모자보건법 개정 가로막는 최종빌런 보건복지부를 규탄한다>
- 12/19 토론회 <젠더기반 여성폭력 종선 정책 제안 토론회>

된다  
상담소



## 한국성폭력상담소 2023년 상담통계

한국성폭력상담소는 1991년부터 2023년까지 총 90,700회의 상담을 해왔습니다. 2023년 전체상담은 1,349건(608명)이며 이중 성폭력 상담은 총 1,291건(557명)으로 전체상담명수 대비 성폭력상담의 비율은 95.7%입니다. 상담소는 상담 지원의 내실화를 목표로 초기 상담의 질을 높이고, 통합적 지원체계를 안정화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담명수(A,B)가 2019년부터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2023년에는 다소 증가했습니다.

기존의 상담통계는 상담통계의 단위를 횡수/건수로 표기하였지만, 2022년 상담통계부터는 쉽게 통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상담인원을 ‘명수’로 중복되는 지속상담을 포함한 상담횡수를 ‘건수’로 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상담 변화 추세에 따라 지속 상담을 포함한 건수 파악도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산정 방식을 추가하였고, 성폭력상담명수(B)의 괄호 안에 초기상담과 지속상담인원을 포함한 한해 전체 상담명수를 추가로 기재했습니다. 자세한 통계는 한국성폭력상담소 홈페이지([www.sisters.or.kr](http://www.sisters.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 연도별 상담현황


〈표 1 최근 3년간 상담현황〉

단위 : 명(%)

연도	상담건수	상담명수(A)	성폭력상담명수(B)	성폭력상담비율(B/A)
(1991년~2020년 상담 통계 중략)				
2021	1,415	595(701)	537(639)	90.3
2022	1,387	537(622)	478(562)	89.0
2023	1,349	608(707)	557(655)	91.6
총	90,700	59,354	50,127	84.4

## 2. 피해자 성별, 연령별 상담현황

여성 피해자  89.2%

남성 피해자  8.6%

성폭력 상담 전체 명수 557명 중 497명(89.2%)이 여성 피해자로 나타났습니다. 나머지 10.8% 중 남성 피해자는 8.6%이고, 피해자의 성별을 밝히지 않은 상담(미상)은 2%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개소 이래 현재까지 비슷한 양상을 보이며, 성폭력의 주된 피해자가 여성임을 보여줍니다. 전체 성별, 연령별 상담현황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집단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성인 여성 피해자로, 총 366명(65.7%)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지난해와 비교해 성인여성(2022년 64.0% → 2023년 65.7%), 여성 청소년(2022년 8.2% → 2023년 8.4%)의 비율이 약간 늘었고 여성 어린이(2022년 9.2% → 2023년 7.5%) 피해자의 비율이 다소 줄었습니다. 남성피해자의 경우 (2021년 5.2% → 2022년 6.9% → 2023년 8.6%)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입니다.

### 3. 가해자 성별, 연령별 상담현황



전체 가해자 성별 중 남성이 전체 557명 중 470명(84.4%)을 차지하였습니다. 이 중 성인남성 가해자가 374명(67.1%)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예년에 비해 가해자의 성별이 파악되지 않은 성별 미상의 비율이 11.8%(66명)로 높게 집계되었습니다.

### 4. 상담 의뢰인별 상담현황



성폭력 피해 당사자가 직접 상담을 한 명수는 557명 중 392명으로 전체의 70.4%를 차지했습니다. 대리인이 상담을 한 명수는 159명으로 전체의 28.5%를 차지했습니다. 예년과 비교하여 피해자 본인(2022년 69.5% → 2023년 70.4%)의 비율이 소폭 증가하고, 대리인(2022년 29.3% → 2023년 28.5%)로 소폭 감소했습니다. 대리인 상담은 가족/친인척이 상담을 한 명수가 91명(16.3%)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상담한 비중은 2018년에 처음으로 60%대에 진입한 후 현재까지 꾸준히 증가하여 70%대에 진입했습니다. 이는 본인이 스스로 해결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상담소를 찾아 자신의 피해 경험을 말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피해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 5. 피해 유형별, 연령별 상담현황

강제추행 피해 상담건수 37.5%  
 강간 피해 상담건수 33.9%

전체 유형 중 강제추행이 209명(37.5%)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강간이 189명(33.9%)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제추행 피해의 경우, 2021년 35.9%, 2022년 36.8%에 이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성희롱 56명(10.1%)이 뒤를 이었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피해자의 연령이 성인(20세 이상)과 어린이(13세-8세)일 경우 강간 및 강간미수의 비율보다 강제추행 비율이 높았고, 청소년(19세-14세)의 경우에는 강간의 비율이 높았습니다.

### 6. 가해 유형별, 연령별 상담현황

가해자 중 성인 가해자(20세 이상) 비중 73.8%

성인(20세 이상) 가해자가 411명으로 전체의 7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청소년(19세-14세) 가해자 33명(5.9%), 어린이(13세-8세) 17명(3.1%), 고령(65세 이상) 가해자 14명(2.5%) 순입니다.

### 7. 피해 연령별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 84.3%

성폭력은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가 470명(84.3%)으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매년 크게 다르지 않은 양상입니다.

피해 연령별로는 성인(20세 이상)의 경우 직장 관계에 있는 사람에 의한 피해가 135명(24.2%)으로 성인 피해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작년 이어 데이트 상대나 배우자 등 친밀한 관계에 의한 피해가 51명(9.2%)

으로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한편, 청소년(19세-14세)은 학교에서 만난 관계에 의한 피해가 13명(2.3%)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어린이(13세-8세)와 유아(7세 이하)의 경우 각각 31명(50.8%), 13명(21.3%)이 친족에 의한 피해로 상담하였으며, 2023년 친족성폭력으로 상담한 61명 중 44명 즉 72.1%가 13세 이하의 유아·아동 피해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20년에 8.3%였던 친족 성폭력은 2021년에는 14.2%로 증가했습니다. 이후 소폭 감소하고 있으나 2023년에 11.0%로 여전히 10%대를 유지하는 결과를 보입니다.

피해자와 가해자 관계 미상의 경우 51명(9.2%)으로 예년 58명(12.1%)에 비해 약 2.9% 감소했습니다.

## 8. 피해자 지원내용

본 상담소가 2023년 한 해 동안 성폭력피해자 지원을 어떻게 해왔는지 보여주는 항목입니다. 지속 지원 상담을 포함한 성폭력상담건수(1,291건)를 기준으로 중복집계한 지원 건수는 총 2,132건입니다. 이 중 정보제공 및 상담원 의견개진이 743건(34.8%)으로 가장 많았고, 두 번째로 심리정서적 지원이 688건(32.3%)로 많았습니다. 심리 및 정서지원은 전화상담이나 면접상담으로 피해자의 심리를 이해하고 지원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세 번째로 많은 지원은 법적지원으로써 482건(22.6%)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의료 지원, 법적지원 외 공식적 대응지원, 기관연계 등의 순서로 나타났습니다.

법적지원은 월요법률상담을 비롯한 법률상담, 법률자문위원 소속 변호사 자문, 수사·재판 동행 및 모니터링, 의견서와 상담기록 제출 등 사건지원과 연관된 지원으로 이루어집니다. 법적지원 외 공식적 대응지원은 고용노동부 진정,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사내 신고 등의 지원을 나타냅니다. 의료

지원의 경우, 피해자에게 의료기관을 연계하거나 치료 및 상담에 동행을 하는 경우, 그리고 경제적 부담이 있는 피해자에게 치료비 지원을 안내하거나 지원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쉼터연계는 쉼터 입소가 필요한 피해자에게 쉼터를 안내하고 연계하는 지원이며, 기관연계는 좀 더 긴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피해자 거주지역의 상담소나 타 기관을 본 상담소에서 직접 연계 의뢰한 경우입니다. 기타는 치유회복 프로그램 안내, 개인적 합의 관련 상담 등을 나타냅니다. 

---

한국성폭력상담소 홈페이지에서는 본 상담통계를 비롯해  
 ‘온라인에서 만남 사람에게 의한 성폭력 피해’와  
 ‘모르는 사람에게 의한 성폭력 피해’를 주제로 분석한  
 세부통계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성폭력 피해자 쉼터, 새로운 함께 살기를 찾아서

수수 | 부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열림터 활동가

열림터는 24년 9월로 서른 살이 된다. 활동가들은 23년 내내 열림터의 30주년을 어떻게 기념할 것인지 회의했다. 삼십이라는 숫자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할까? 그런 마음을 알아주듯 한 운영위원이 “30주년을 맞아 열림터가 하고 싶은 말이 있으세요?”라고 물었다. 같이 회의에 참여하던 다른 운영위원이 이렇게 답했다. “우리는 5와 0으로 끝나면 뭐든 해야 해요. 하고 싶은 말이 없어도 해야 해요.” 그 대답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깔깔 웃었다. 그렇다. 5와 0이란 숫자에는 뭔가 크나큰 매력이 있는 것 같다. 하루하루 흘러간 세월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의 마음이 담겨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사실 열림터가 하고 싶은 말이 없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서 문제다.

## 집이지만 집이 아닌 곳, 공동체이지만 공동체가 아닌 곳, 비밀이 아니지만 비밀인 곳

성폭력 피해자 쉼터라는 시스템은 여러 의미를 가진다. 쉼터는 집이다. 이 집이 있기 때문에 성폭력 피해자들은 피해의 공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쉼터는 함께 사는 공간, 즉 공동체이다. 쉼터에서는 피해를 안고 나아가는 법을 함께 익힌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기에, 피해도 함께 다루면 조금 덜 무거울 수 있다. 나를 성추행 한 아버지를别주고 싶다는 얘기를 해도 누구도 패륜적이라고 욕하지 않는다. 동시에 그 아버지가 너무나 싫지만, 가족이기 때문에 보고 싶어지기도 한다는 말을 해도 괜찮다. 쉼터에서는 그동안 숨겨왔던 성폭력이라는 비밀을 털어놓을 수 있다. 사회가 침묵시키던 너와 나의 피해를 눈치 보지 않고 말할 수 있다. 우리는 모두 생존자이고, 이 공간은 여성주의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다. 이런 비밀들은 잠들기 전 대화로, 문집으로, 즉흥연극으로, 자기방어훈련으로 터져 나온다. 원가정에서는 비난받았던 나의 힘들었던 기억들이 쉼터에서는 성폭력과 2차 피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다.

동시에 쉼터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다. 쉼터는 집이 아니다. 모름지기 집이라면 내가 언제 떠나야 할지 불안하면 안 된다. 그러나 쉼터는 임시정거장일 뿐이다. 아무리 편하게 지내라고 해도 쉼터에 머무는 생활인들은 늘 불안하다. 쉼터는 공동체일 수 없는 공동체이기도 하다. 마음 맞는 너와 내가 같이 살기로 약속하고 모이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 피해와 저 피해를 입은 사람들, 요 경험과 그 경험을 한 서로 다른 사람들이 갑자기 만났다. 쉼터에 정말 오고 싶지 않았지만 갈 곳이 없어서 온 경우도 많다. 친구를 만날 거라 잔뜩 기대했지만, 막상 만나보니 하나같이 안 맞는 사람들일 수도 있다. 누구는 코를 골고, 누구는 자꾸 자다가 소리를 지르고, 누구는 나랑 노래 취향

이 정말 안 맞기도 한다. 뒷담화, 거짓말에도 민감해진다. 내가 싫어하는 향을 좋아하는 룸메이트, 자꾸만 머리카락을 치우지 않는 옆 방 식구가 밉고 가끔은 견딜 수 없을 정도이기도 하다. 같이 살지만 쉼터의 사람들은 항상 사람 때문에 괴롭고 또 외롭다. 쉼터에서는 비밀이었던 성폭력을 마음껏 말해도 되지만, 쉼터는 비밀 그 자체이기도 하다.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공간은 비밀쉼터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열림터를 거쳐 간 많은 사람들은 ‘내가 쉼터에 있었던 시간’을 남들에게 뭐라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당혹감을 토로한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낙인, 가해자들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기 위해서이긴 하지만, 비밀은 답답한 일이다.

위에 열거한 쉼터의 의미와 한계는 누구보다 열림터 사람들이 가장 잘 알고 있다. 우리들은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한다. A 생활인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쉼터에 와서 다양한 음식도 먹어보고, 문화생활도 해봤어. 실패해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좋아. 아침에 일어나고 밤에 잘 수 있게 되었어. 하지만 이런 규칙 때문에 내 삶이 통제받는다는 느낌이 들어서 힘들어.’ B 활동가는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열림터 생활인들과 함께 수다를 떨거나 서로의 경험을 토대로 여성주의를 말하는 일은 정말 즐거워. 하지만 입소 기한이 끝나면 이 사람은 과연 어디로 가야 할까? 또 자기만의 규칙을 세울 수 있는 사람들이 열림터 규칙 때문에 힘들어하는 걸 보면 너무 고민돼.’ 결국 우리는 이구동성으로 동의하고 만다. 지금의 쉼터 모델만이 해답은 아니라는 사실에.



## 오래된 쉼터 모델을 넘어, 새로운 주거기반지원으로


사실 쉼터 말고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사실은 눈앞에 당면한 문제이기도 하다. 열림터 입소자 수는 점점 감소해왔다. 피해자들은 여러 이유로 쉼터 입소를 꺼린다. 야간 근무 때문에, 반려동물과 함께 입소할 수 없어서, 모르는 사람과 같이 방을 써야 해서, 쉼터에 친구를 데려올 수 없어서. 입소하는 사람이 줄어든다는 것이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그만큼 생활인들은 더 넓은 공간과 사생활을 누리고, 활동가들과의 집중적인 돌봄과 새로운 형태의 관계를 경험하기도 한다. 그러나 숫자가 곧 실적이 되는 현실에 이렇게 부족한 입소자 수는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여가부 폐지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선동하며 탄생한 윤석열 정부는 이미 여성폭력피해자 지원 예산을 삭감하는 중이다. 매해 시설평가 때마다 적은 입소인 수에 스스로 움츠러들면서, 열림터 활동가들도 ‘우리가 언젠가 문을 닫을 수 있겠구나...’ 결연하게 생각한다.

그렇지만 마냥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문을 닫더라도 타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 손으로 닫을 것이고, 더 나은 방향을 열면서 닫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몇 년동안 대안적인 방식으로 운영되는 쉼터를 찾아다녔다. 생활인들이 스스로 규칙을 만드는 쉼터, 게스트하우스처럼 운영되는 쉼터 등을 방문하면서 각각 실험의 성과와 아쉬운 점을 공유 받았다. 탈시설, 주거권 운동과 연대하기도 했다. ‘한국의 사회복지시설은 왜 다 공동생활을 전제로 할까?’ ‘집을 주기 싫어서 그러는 거 아냐?’ 질문도 던져 보았다. 열림터가 1인 1실을 가능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다. 어느 토론회에서는 전국에 버려진 모텔을 수리하면 1인1실 거주시설을 손쉽게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제안을 듣고 솔깃해하기도 했다. 심심하면 LH 홈페이지에 들어가보

고, 부동산 사이트를 들여다보며 다른 방식의 쉼터를 운영할 방안을 찾아다니기도 했다.

열림터 활동가, 생활인, 포우리<sup>1</sup>들의 생각은 각각 다르다. 열림터가 쓸모 없는 공간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지만 오래된 쉼터 모델보다 더 나은 지원 방향이 있을 것이라는 데에는 모두 동의할 것이다. 지금 열림터는 쉼터가 아닌 주거를 기반으로 한 다른 지원 시스템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그것이 정확히 어떤 모양일지 모르지만.

쉼터가 최선이 아니라고 말하는 쉼터. 얼핏 모순적인 주장이지만 쉼터는 항상 모순적인 공간이었다. 서른 살을 맞은 쉼터,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막연하고 큰 질문이지만 사실 꼭 필요한 질문이다. 열림터는 앞으로 계속해서 길을 찾을 것이다.

이 책을 읽는 후원자 여러분, 언젠가 열림터가 새로운 벽돌기금 후원을 요청할지도 몰라요. 또 다른 집을 짓기 위해서요. 

---

1) 상담소와 열림터에서 쉼터에 머물렀던 전 생활인을 부르는 말. '또 만나요 우리'라는 의미.

## 피해자에서 연대자로

이만나

강간의 잘못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이 사회에 살면서 괴로웠습니다. 지인으로부터 당한 강간에 애초에 내가 가해자를 가해자라고 알아보지 못한 자책감으로 살았습니다. 그 우울감이 저를 옥죄고 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요즘도 잘 지내다가 우울감이 덮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예전처럼 스스로에게 화를 내진 않습니다. 화를 내어야 할 이 가부장적인 사회에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것을 도움 받게 된 시작은 여성주의 집단상담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처음 만난 생존자들은 모두 하나 같이 스스로를 탓하고 있었고 사회가 주는 따가운 시선에 몸과 마음을 움츠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탓이 아니라며 서로를 위하는 시간을 가졌고 그때부터 여성주의 공부라는 것에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때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하는 성폭력상담원교육의 한국여성사를 시작으로 성에 관련한 모든 폭력의 구조를 공부하며 성폭력 피해자가 스스로를 탓하는 이유까지 알게 되니 치유가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한동안 잘 지냈습니다. 코로나가

**〈생존자의 목소리〉**는 성폭력 피해생존자들의 이야기를 에세이, 시, 그림 등의 형식으로 실는 코너입니다. 본 코너는 생존자의 고유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창구이며, 교정 교열 외의 편집은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담소의 다른 글과 관점도 논점도 조금 다를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끝나고 사람들을 다시 대면하게 되면서 우울증은 다시 심해졌습니다. 여성 인권에 대해 같이 연대하는 사람들 이외에는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가부장적인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을 잊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성이 성폭력 당한 맥락에서 여성피해자답지 못했다고 피해자들을 탓 대질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피해자들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여성인권을 위해 공부한 소수들과 함께한 시간들, 이 현실, 괴리감에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럴 때 작은 말하기를 만났습니다. 생존자끼리 오가는 연대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회복력을 제게 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작은 말하기는 다른 집단상담처럼 정해진 기간이 없이 이어갈 수 있다는 안정감이 더없이 좋습니다. 현재까지 반년을 빠지지 않고 참여 중입니다. 그런데 요즘 제가 듣게 된 아픈 소식이 있습니다. 이번 정부가 밀고 있는 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 삭감입니다. 아직 작말(작은 말하기)에 어떤 영향이 올지에 대한 이야기는 들은 것 없지만 작말이 어느 날 없어지게 될까 봐 걱정입니다.

예전에 제가 생애 처음으로 한 집단상담에 들어간 지원 비용이 최근에는 예산이 줄어 그것의 n분의 1으로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도 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 삭감 발표 이전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더 줄어들지 아니면 이 또한 언제 사라질지 모르겠습니다. 비참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도 대한민국의 사회는 여성이 하늘의 절반을 지탱한다는 진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성의 경험과 지혜를 고려하지 않은 어떠한 사회 변혁의 시도도 모두 실패하고 말 것이라는 점 또한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 무력감 속에서 회복의 희망인 작말을 또 다녀왔습니다. 작말을 맡고 계시는 활동가 선생님께서 나눔터에 실을 원고 의뢰를 해주셨습니다. 그 덕

에 글로나마 속시원하게 내 안에 고여있는 썩은 핏덩어리를 토해내고 싶어서 이렇게 펜을 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가진 성폭력 PTSD가 회복에 있어서 여성학 공부가 크게 도움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보아온 한국여성운동은 지난 20년 넘게 이뤄낸 운동 성과가 매우 큼니다. 그 중에서도 법률 제정과 제도의 정비는 주목할 만합니다. 특히 여성폭력추방운동은 피해사례를 발굴하고 이 문제와 싸웠습니다. 그에 따른 법률제정운동 그리고 제정 후 법집행 참여의 운동 스타일을 낳고 열악한 상황에 있던 여성 단체가 양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물리적 기반이 되었습니다. 각지에서 여성단체가 활발해져 전국적인 네트워크도 강해졌습니다. 이러한 힘은 또 새로운 법률 제정운동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여성 운동과 NGO의 정체성에 대한 논의를 가져오고, 운동의 진로에 대해 스스로를 성찰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는 전국에서 24시간 운영하고 있는 여성긴급전화 1366과 상담소와 쉼터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 속에서 보호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서 들여다보니 한 시설은 거의 100% 민간이 운영하고, 그 절반은 사단법인인 여성 단체의 운영입니다. 관련법에 따라 4명 정도의 인건비와 운영비 일부가 지원되지만, 그 대상이 되고 있는 상담소는 50%에 못 미칩니다. 근데 이 열악한 환경에서 정부는 여성 폭력 예산 삭감이라니. 정말 말도 안됩니다.


여성 관련법은 남성의 이해에 근거한 남성의 언어로 기술된다는 한계가 있어서 여성의 인권은 특별한 것으로 제한됩니다. 특별법이라는 형태의 제정이 되어 있는 일반법에는 남성 중심성의 극복이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성의 인권보호법인데 법의 운영은 남성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성 피

해자는 남성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질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피해자는 항상 남성에 의해 명예훼손죄로 역고소되어 피해자인데 가해자가 되거나 남편에게 지속적으로 맞고 있다가 정당방위로 남편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살인자가 돼 있습니다. 여성의 인권 확립은 여성 피해자의 보호라는 도식을 낳았지만, 여성에 대한 폭력 방지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자유주의 인권의 관점은 여성을 대상화 또는 비주체화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몸을 분해하여 각론으로 했습니다. 나아가서는 장애를 가진 여성이나 이주 여성의 문제에 대해서 설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양성평등이라는 용어는 여성주의를 대중에게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남녀 이분법적인 섹슈얼리티를 고정하고 동성애 등 다양한 성적 지향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폭력을 성적 자율권의 침해로 정의하고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한국 사회에서 여성은 동의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데이트 폭력 피해자는 “왜 도망치지 않았나요?”라고 종종 질문을 받습니다. 이것은 여성을 주체성으로 행동할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우리는 폭력하에 놓여진 여성이 이미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 알고 있습니다. 법은 모두에게 평등하다는 가설은 여성에게 이렇게 이중 폭력의 상황을 만듭니다. 그렇다고는 해도 법 이외에 여성의 인권 보호의 방안을 갖지 않는 것이, 여성폭력 추방운동의 한계입니다.

또 여성의 인권을 발목 잡고 있는 것은 가족주의입니다. 한국 여성을 현대적인 개인이 아닌 봉건적인 가족 정체성 속에 머물고 있는 것은 견고한 가족주의입니다. 여성은 개인이 아니라 가족의 것입니다. 데이트 폭력 방지법 역시 제정 당시 가족주의와 타협할 수밖에 없고, 아내를 때리며 생기는 가정 문제의 보호를 제일의 목적으로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인은 가정이 망가졌다는 말을 들으면 마치 무인도에 혼자 남겨진 인간의 공포감으

로까지 연결됩니다. 아내를 때린 남성의 명예는 지킬 수 있지만 남편이 있는 여성에게 성폭력을 한 남자는 가정을 붕괴시킨 것으로 중죄가 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한국사회의 가부장제는 여전히 견고합니다.

한국의 여성운동은 지금 20년이 넘는 시간들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운동 방향성을 숙고하기 위해 다양한 평가회의, 토론회 등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쉬운 작업이 아니기에 결론이 나올 때까지 시간이 계속 걸릴 겁니다. 그래도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한국의 여성운동은 21세기를 리드하는 새로운 비전을 세계에 보여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가 작말에서 요즘 늘 적는 말이 있습니다. 평생 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시는 우리 활동가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_ 감사해서 존재하는 이안나

## 소박한 일상으로 한걸음이 되기까지

민희

동성간의 스킨십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성간의 경계없는, 동의없는 신체 접촉도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추행 가해자가 동성이면, 이성보다 덜 불쾌하고, 덜 심각할 것이라고 추측하는건 편견입니다.

동성 가해자들이 대체로 동성애자일 것이라고 추측하는것 또한 위험한 편견이지 않을까요?

성추행이 성별, 성적 지향에 따라서 판단되지 않는 사회이길 바랍니다.

흔히들 하는 변명 “난 이성애자이고 친구한테 장난 좀 친것뿐이다”, “평소에도 하던 스킨십이었는데 억울하다” 등등. 민감한 부위를 만져놓고서는 동성이기 때문에 그게 자연스러운 행위라는 뻔뻔한 변명들이 지긋지긋합니다.

제가 작년에 겪은 일은 이성으로부터 피해를 겪었을때보다 후유증이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꿈에서도 가해자와 2차 가해자가 합세하여 저를 괴롭히는 악몽을 꿴습니다. 저는 작년에 저의



허벅지를 동성이 만진것에 대해 성추행이라고 느꼈고, 문제제기를 하였습니다. 제가 앉은 자세 때문에 치마가 더 올라가서 허벅지가 안쪽까지 노출되긴 했지만, 그것이 맨살을 동의없이 만져도 된다는 제스처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저의 허벅지에 두번이나 손을 올려두고 그후에는 어깨를 밀었습니다.

불쾌하고 민망했으며 기분이 더러웠습니다.

가해자가 시민운동단체에서 일하는 활동가였기 때문에 소속 단체 임원에게 징계 및 성폭력예방교육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공동체적 해결을 바랬던 저의 기대와는 달리 가해자로부터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 단체에서 주최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가 사무실내 뒷풀이 자리에서 벌어진 일이었기 때문에 해당 모임 단체 카톡방에 공문화를 하고, 단체 임원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이것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 이유라니 몹시 참담했습니다.

저는 그저 가해자가 적절한 징계와 예방교육을 받은후 다시 상근 활동을 하면서 그곳이 안전한 공간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믿기지 않은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그 단체 임원에게 피해 제보 메일을 보내면서 실명과 이메일 주소를 밝혔는데, 이런 저의 개인정보까지 포함하여 내용 전문이 고스란히 가해자한테 유출이 된 것입니다.

가해자는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서 이렇게 입수한 메일 내용을 고소의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번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이러한 2차 가해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공익 제보 내용을 이런식으로 유출시킨 2차 가해자는 아무렇지도 않은듯 선거 출마 준비를 하며 정치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여러곳에 상담을 해보니 이렇게 업무상 알게된 개인정보를 누설한 경우 문제가 있다고 하더군요.

진보적 시민운동단체에서 활동해온 두 사람은 각각 이사, 대표로 취임까지 했습니다. 취임 시기를 확인해보니까 제가 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명예훼손 조사를 받으러 갔던 그 즈음이었습니다. 제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극단적 생각까지 들었던 그 시기에 그들은 중요 직책을 맡게 되다니 너무 소름이 끼쳤습니다. 특히 저를 추행하고 억고소까지 한 가해자가 징계는 커녕 이사로 취임까지 했다는것에 크게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잘못은 저들이 했는데 내가 왜 범죄 혐의 조사를 받아야하는지 분통이 터졌습니다. 주말에 혼자 외롭게 경찰서에 조사받으러 가면서 눈물이 났으나 막상 조사를 받을때에는 약해보이기 싫어서 덤덤한 척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1년이 넘는 시간을 그런 인간들 때문에 나의 일상과 에너지를 뺏기고,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게 억울할 따름입니다. 비록 소수이지만 저의 발화를 지지하고 응원해주신분들 덕분에 이렇게나마 버틸 수 있었습니다. 저의 피해 경험을 믿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고통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나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과거의 저의 웃음과 유쾌함을 간절히 되찾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약물 치료도하고 있습니다. 주치의는 제가 그동안 상대방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왔는데, 정작 나 자신을 위해서는 어떠한 치유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집중해보라고 권유하시더군요.

이제는 정말 나 자신한테 집중하면서 나를 위한 돌봄을 우선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취약한 상태에서 공론화를 이어가는건 내 자신을 위해서도 위험할수 있겠다 싶습니다.

저한테 일상을 회복할 힘이 생기면, 그때 다시 부당함과 맞서보겠습니다.

그리고 설사 그 2차 가해자가 저한테 사과 한마디 없이 공직 선거에 당선 이 되더라도 제가 무너지지 않을만큼 멘탈을 유지하고 싶습니다. 미치도록 힘들때마다 나를 믿고 연대해준 몇몇의 사람들을 기억하며 따뜻한 위로를 받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인긴관계를 맺으면서 편하고 안전한 일상으로 돌아가는게 저의 꿈입니다. 과거에는 당연하고 소박하다고 생각했던 일상이었는데, 지금은 꿈이 되었을만큼 소중하고 간절합니다. 이제는 상처에 몰두하기보다는 저를 위한 건강한 일에 에너지를 듬뿍 쓰겠습니다. 그럴수 있도록 지켜봐주시고 조언도 해주세요.

생존자 후기를 쓰다보니까 한결 홀가분해진 기분입니다. 저의 경험을 나눌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



- 클럽에서 춤추기, 스탠딩 코미디, 여성주의 모임을 좋아함. 사람을 두려워하면서도 금사빠

# ‘흥기난동’ 사건을 바라보는 반성폭력 활동가들의 이야기

수수 | 부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열림터 활동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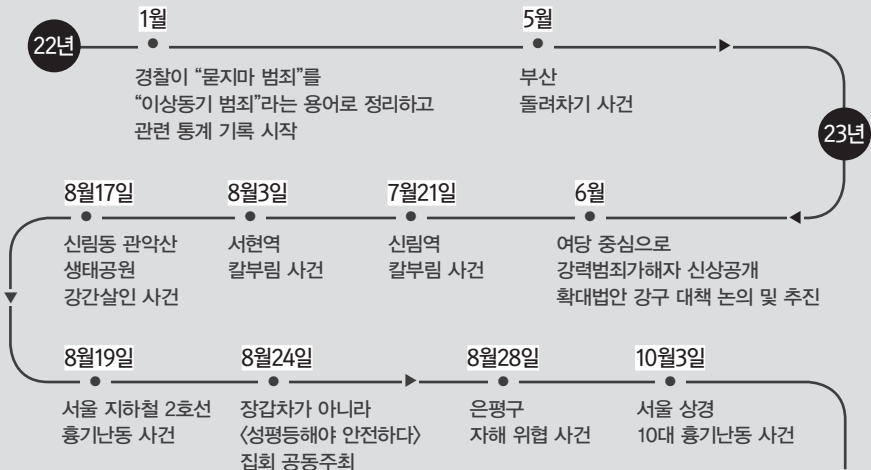
2023년은 유독 안전하지 않다는 감각을 불러일으키는 사건이 많았습니다.

‘이상동기’라고 뭉뚱그려 표현하지만, 어딘가 찝찝한데요.

상담소 활동가들이 일련의 사건들을 여성주의의 눈으로 해석해보았습니다.

- ◆ 일시 \_ 10월 31일 오후 2시~4시
- ◆ 장소 \_ 한국성폭력상담소 지하1층 이안젤라홀
- ◆ 참여자 \_ 감이, 란, 산, 수수, 오매, 유랑

## ‘흥기난동’ 사건 주요 흐름 파악하기





\_ 이상동기 좌담회

수수 \_ 올해 일어난 강력범죄들을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7-8월에는 거짓 살해 예고도 많았잖아요. 이상동기범죄, 흉기난동사건, 여성혐오범죄, 증오범죄 등. 개념 정리 자체가 논쟁적인 것 같아요. 한편 시민으로서 느끼는 불안과 혼란을 어떻게 해소해야 할지 고민이 되더라구요. 다들 이 시기를 어떻게 지내셨나요?

### 모든 강력범죄가 이상동기는 아니다!

#### 여성에 집중되는 피해의 구조 살펴보기

산 \_ 이 모든 사건을 하나의 이름으로 규정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사건마다 얽혀있는 서사와 사회문제가 다양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현 정부나 언론

은 마치 이 사건들이 악마 같은 개인에 의한 것처럼 축소하고 본질을 흐리는 것 같아요.

**감미:** 최근 일어난 사건 중, 여성을 대상으로 했던 사건들은 새로운 폭력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흥기난동 사건이라고 하면 새롭게 들리지만,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나 신림동 공원 성폭력 사건은 성폭력 사건이라고 정확하게 이름 붙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오매:** 맞아요. 2016년 강남역 사건 이후 ‘여성혐오범죄’라는 키워드가 쟁점이었잖아요. 하지만 최근 ‘여성혐오범죄란 없다’는 증거로 신림역, 서현역, 은평구 칼부림 사건이 제시되기도 하더라고요. 흥기난동 사건들이 구조적 성폭력을 면피하는 증거로 쓰이는 것이죠.

**유량:** <남성특권>이라는 책에서 인셀<sup>1</sup>을 분석하는데요. 현대 사회에 남성 특권이 상실됨에 따라 인셀이 폭력을 행사한다는 해석이 와닿았어요. 사건들을 여성혐오와 성폭력의 관점에서 제대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해요.

### 여성이 피해자라는 사실을 넘어, 이상동기범죄에 대한 페미니스트 관점의 분석 제시하기

**수수** \_ 그런데 정말 어떤 사건은 여성 대상 범죄가 아니기도 해요. 이 모든 일을 페미니스트 관점으로 해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인셀은 비자발적 순결주의자(Involuntary Celibate)의 줄임말로, 여성과의 연애와 성관계에 실패한 남성을 일컫는다. 인셀은 젊은 남성들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스스로를 자조적으로 부르는 방식으로 쓰이기도 하며, 소위 정상적인연애에 성공한) 남성과 선을 그으며 비하하는 말로서 쓰이기도 한다. 해외에서도 인셀의 자기혐오, 좌절, 분노에 의한 강력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오매:** 여성 피해자 비율이 높은지를 보는 것만이 젠더 관점은 아닌 것 같아요. 페미니스트로서 사회적인 고립의 문제를 들여다봐야 하지 않을까요? 공권력으로 범죄를 엄벌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도 젠더 관점의 해석일 수 있죠. 범죄자만 제압하면 성폭력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폭력을 만들어낸 사회문화가 있다는 걸 우리는 오랫동안 깊이 있게 관찰했어요. 해석과 논쟁의 장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엄벌주의가 메우는 요즘 분위기는 문제라고 봐요.

**수수:** 모든 사건을 막연하게 홍기난동 사건이라고 부르면서 공포를 자극하는 것도 문제예요. 최근 우리 사회는 여러 면에서 불안했죠. 서울시에 경제정보 문자가 잘못 오고, 국군의날 행사 준비로 전투기도 날아다녔잖아요. 전쟁을 떠올리게 하는 미묘한 공포의 기류도 함께 감각되었던 거 같아요. 실제로 안전을 담보하는 것보다는 공권력의 힘을 강조하는 정책만 제시되니, 안전망과 관계망이 취약한 사람들은 그 때문에 더 공포에 휩싸이는 것 같아요. 고립의 악순환으로도 이어질 것 같구요.

**란:** 얘기를 듣다보니, 공포가 젠더화된다는 표현이 떠올라요. 최근 홍기난동 사건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다고 알려지긴 했지만, 가해자가 대부분 남성인 탓에 여성들이 더욱 불안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호신용품을 마련하고, 밤길을 조심하는 등 개인적인 대응을 많이 하고 있구요. 공포가 젠더화되어 여성들이 움츠러들고 행동을 제약받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산:** 정부가 취하는 조치들에 대해 생각해 보게 돼요. 젠더 폭력을 부정하고 성평등 예산을 삭감하는 반면, 곳곳에 장갑차와 무장 경찰을 배치하잖

아요. 강한 권력을 이용해 문제 상황을 눈앞에서 치워버리는 것을 선호하는 것 같아요. 당장에는 쉽고 빠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사회 갈등과 폭력을 얼마나 심화할까요. 속이 답답할 뿐이에요.

### 공권력이 ‘위험’을 제거하면 안전해지는 걸까? ‘엄벌주의’ 정책의 한계

**란:** 일본에서도 이미 ‘묻지마 범죄’가 심각한 사회이슈였다고 해요. 빈곤과 고립 상태의 청년들이 자기 존재를 증명하고자 하는 욕구가 범죄 형태로 발생한다고 해석하더라구요. 무차별 살상사건의 가해자 다수가 정신병력이 없는 낮은 학력의 고립된 청년 남성이었다고 하구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고립 대책 마련을 한대요. 범죄 환경을 막는 물리적인 조치도 취한다고 들었어요. 자동차가 인도로 올라가지 못하게 하는 장치처럼요. 반면 한국 정부는 자꾸 ‘제시카법’<sup>2</sup> 같은 엄벌주의를 해답처럼 제시하는 것 같아요.

**유랑:** 사회적인 공분을 사는 성폭력 사건이 있을 때마다 인터넷 댓글창에는 ‘사형제도 부활시켜라’, ‘무인도에 가둬라’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가해자에 대한 분노에는 공감하지만, 그게 답이 아니라 건 어떻게 소통할 수 있을까요? 이상성육이 성폭력의 원인이라고 인식하는 것도 문제예요. 지금 논의 중인 제시카 법안도 성충동 약물치료에 동의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거주지 제한 명령을 참작한다는 내용이 있더라구요. 이 씨. 강간죄 개정은 안 하고 이런 것만.

2)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법률로, 2005년 아동 성폭행 및 살인 사건을 계기로 미국 플로리다 주에서 제정한 법안이다. 한국형 제시카 법의 경우 고위험 성범죄자를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생활하도록 거주지를 지정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란:** 범죄자들을 격리하면 사회가 안전할 거라고 기대하지만, 사실 배제와 격리의 정책이 시행될수록 강력범죄 재범률이 상승한다는 해외 보고도 있어요<sup>3</sup>. 국가가 나서서 엄벌하거나 장갑차가 등장하면 안전해질 거라는 기대는 전쟁과 군사주의에 기반한 남성적인 관점이기도 한 것 같아요.

### **공권력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서로를 위해 개입하고 조력하는 문화의 필요성**

**란:** 공권력의 개입을 요청하는 분위기도 이해해요. 그동안 국가가 가정·성폭력의 공포에 대해서 ‘개인이 알아서 처리하면 될 문제’라고 여기고 개입하지 않았던 역사를 무시할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승인된 사람들만 있어야 안전하다고 느끼는 감각들이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공권력 개입의 한계이자 공백이겠죠. 공권력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서로를 위해 개입하고 조력하는 문화가 강조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주 강력한 국가가 처벌을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것보다는 시민성의 강화가 중요하다고 봐요.

**수수:** 최근 어떤 생존자가 치유와 회복의 과정을 거친 후 사회에 ‘흡수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고 말씀하신 것을 들었어요. 폭력 피해로 굉장히 힘든 시기였을 때, 본인이 사회에서 돌출된 존재로 여겨졌다는 맥락에서요. 축하할 일이지만, 사실 돌출된 게 문제는 아니잖아요. 오히려 어떤 돌출된 존재를 관용할 수 있는 사회 감각이 필요한 거죠. 우리 사회가 점점 ‘이상한 사람들’을 배척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돼요.

3) 허경미(2019), “미국의 성범죄자 등록·공개·취업제한 제도에 대한 비판적 쟁점”, 한국공인행정학회보, vol.28, no.1, 통권 74호.

**오매:** 맞아요. 지금 공권력은 범죄자와 함께 ‘비정상성’을 격리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있잖아요. 이런 지점에서 여성주의 자기방어훈련이 참조점이 될 수 있을까요? 여성주의 자기방어훈련도 불안하고 민감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자원을 모색하기 위해 시작되었잖아요. ‘나는 무력하고, 위협당할 수밖에 없다’는 감각보다는 나와 우리의 존엄성을 잃지 않으며 대응 방안을 같이 생각해 보는 문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

### 2023년 이후, 반성폭력 운동의 과제

**오매:** 예전에 우리 상담소에서 했던 성폭력 가해자 교육이 가끔 생각나요. 가해자의 여성차별적인 사고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점검하고, 다시 새로운 시민이 될 수 있게 교육한 거예요. 공권력 대신에 우리가 시민으로서 문화와 인식을 바꾸어왔던 과정이었던 거죠. 지금도 때때로 가해자들의 전화를 받아요. ‘가해자로 신고됐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보통은 피해자 전화를 받아야 하니까 빨리 끊는데요. 진지하게 시간을 들여서 답하고 싶기도 해요. 피해자가 어떤 말을 하는지 잘 듣고, 자기 행동에 책임지는 태도로 임하시라고요. 역고소 하지 말고.

**유랑:** 저도 더 많은 남성과 접점을 만드는 성문화운동 사업을 해야 하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어요. 많은 여성은 자기 경험과 부딪히며 사유와 행동을 연마하는 반면, 페미니즘을 만나지 못한 남성들은 잘못된 인식을 정당화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란:** 강력범죄 문제가 어떤 정책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살피고, 엄벌주의 정책에 찬동하지 않는 게 우선일 것 같아요. 이 정책들이 구조적인 불평등을 어떻게 가속하는지 알아야 해요. 모든 범죄자를 한데 묶어 격리하는 제도가 소수자 혐오와 배제를 더 손쉽게 만든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봐요.

**산:** 성별에 국한하지 않은 운동을 고민하자는 말에 공감해요. 반성폭력 운동의 최종 목적지는 성폭력 피해생존자 지원을 넘은 성폭력 근절이니까요. 여성 간의 연대에만 머물지 않고 여성 인권을 위한 연대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 상담소에서도 여러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 같아요.

**수수:** 최근 '은둔고립청년' 정책<sup>4</sup>이 많이 만들어졌잖아요. 기댈 사람과 공동체가 없어 궁지에 몰린 청년들이 점차 조명되고, 그에 대한 정책적 접근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홍기난동 사건이 고립된 남성 청년들의 자기 표출 방식이라면, 고립된 여성들은 어디서 어떻게 자기 표출을 하고 있을까요? 20대 여성들의 정신과 입원과 자살 시도 증가 통계가 마음이 쓰여요. 우울한 10대 여성들이 우울증 갤러리를 이용하고, 2030 남성들이 이들을 착취하는 현상으로도 드러나는 거 같구요. 이것도 반성폭력 운동의 과제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

4) 서울시 고립은둔청년지원사업 자가체크리스트에 따르면 '중요하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 '급한 일이 있을 때 부탁할 사람이 없는 경우', '낙심하거나 우울할 때 속마음을 풀어놓을 사람이 없는 경우' 등에 해당할 때 고립 상태에 있다고 판단한다.

## 보호출산제, 그것이 알고싶다

유랑 | 성문화운동팀 활동가



*영아 살해/유기 사건의 사회적 충격으로 빠르게 입법이 이뤄진 보호출산제.*

*사건들이 일어난 근본적 배경을 해결할 수 있을지*

*요목조목 따져보고 고민할 시간은 부족했던 것 같은데요.*

*이 법안, 정말 문제가 없는지 함께 짚어봅시다!*

지난 6월, 출생 미등록 아동에 대한 복지부 감사와 전수조사가 시행되며 영아 살해 및 유기 사건이 연이어 드러났습니다. 이를 계기로 병원에서 아이를 낳으면, 의료기관이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출생통보를 해야 하는 출생통보제가 통과되었습니다. 여전히 미등록 이주아동, 외국인 아동이 배제되었다는 큰 한계가 있지만, 아동의 출생 등록을 제도화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와 함께 ‘익명’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게 하는 ‘익명출산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면, 출산을 알리고 싶지 않은 산모가 병원 밖에서 출산을 하지 않겠냐는 이유였습니다. 이 제도는 보호출산제라는 이름으로 빠르게 입법이 진행되어 10월 6일,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안’으로 통과되었습니다.

보호출산제, 이름만 보면 좋은 이미지가 떠오르지만, 사실 이 법은 여성도, 아동도 보호하지 않습니다. 여성의 몸에서 일어나는 임신·출산은 삶에



\_ 보호출산제 토론회(2023.10.5)

대한 기획을 전반적으로 변화시켜야 하는 큰 사건입니다. 여성이 양육을 포기하는 이유를 ‘출산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아서’라고만 설명하기에는 여성이 임신 상태를 유지하고 아동을 양육하는 것에 매우 다양한 요인과 변수가 영향을 미칩니다. 이 요인은 개인이 처한 상황이기도 하지만, 여성이 임신에서 출산·양육에 이르기까지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어렵게 만드는 사회와 법제도, 문화가 만들어낸 것이기도 합니다. 가령, ‘낙태죄’ 조항이 폐지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임신중지를 할 수 있는 병원이나 공식적인 정보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미프진 등의 유산유도제와 임신중지에 대한 건강보험도 아직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여성은 임신중지와 관련한 정보나 병원을 찾지 못해서, 임신중지를 할 비용이 없고 접근하기가 어려워서, 또는 재생산권과 관련한 교육을 전혀 받을 기회가 없어 임신중지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예 알지 못하거나 임신 사실을 몇 개월동안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알게 되기도 합니다. 임신 유지를 원하지 않았으나 이와 같은 문제로 포기하거나 임신중지 시기가 지연되어 신체적으로 큰 부담을 지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또한, 원가족 또는 친부에게 임신 사실을 알릴 때 상대방이 관계를 단절해 고립된 상태에서 혼자서 아이를 양육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한부모 양육지원 수당은 월 20만원(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월 35만원)으로 턱없이 부족합니다. 다른 한부모 지원정책은 어디서 어떤 조건으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찾기 쉽지 않습니다. 한국미혼모가족협회가 협회 회원 14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 따르면, 양육을 선택한 미혼모들이 경제적 어려움(51명, 29.3%)을 가장 많이 느끼고 양육비를 신청해도 받는 경우는 극소수입니다<sup>1</sup>. 청소년 미혼모의 경우, 4명 중 3명은 여전히 학업을 중단합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sup>2</sup> 정상가족 결혼제도 바깥에서 아이를 기르는 미혼모나 사회적 약자·소수자에 대한 낙인과 차별도 빼놓을 수 없는 어려움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보호출산제는 여성이 양육을 포기하는 이유를 단지 산모가 출산 사실을 알리기 싫어한다며 개인의 책임으로만 전제함으로써 오히려 미혼모에 대한 낙인을 강화합니다.

보호출산제 제정법안을 찬찬히 뜯어보면, 권리를 침해할 여지가 있는 조항이 많은 것도 문제입니다. UN 아동권리협약 제7조 1항은 아동이 출생 후

1) 여성신문, "보호출산제, 이용하는 사람 없어야 성공... 미혼모 사회적 편견 국가가 개선해야", 2023.11.01.,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1977>

2)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안 제17조(출생증서의 공개 청구등)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보장원장은 신청인 및 생부의 동의를 받아 보관하고 있는 출생증서를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장원장은 대동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 또는 생부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 또는 생부의 동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거나 신청인 또는 생부가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 또는 생부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출생증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 “가능한 한 부모가 누구인지 알고 부모에 의해 양육 받아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그러나 보호출산제 제17조는 보호출산제로 태어난 사람이 출생증서 공개청구를 할 때 친생모나 생부의 동의 없이 정보공개가 불가능하도록 규정<sup>11</sup>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아동이 부모를 알 권리를 침해합니다. 또한, 9조 2항은 “임산부가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보호자가 보호출산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임신이나 출산을 할 때 임신중지나 불임시술을 중용하는 사회에서 이 조항은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재생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여지가 있는 조항입니다. 성인과 같은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 존중받지 못하는 청소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한 결혼이주여성이 아닌 외국인, 미등록 이주민은 기초생활보장법을 포함한 한국의 사회보장제도에서 늘 배제됩니다. 위기임신 상황으로 지원 단체를 찾는 여성의 절반이 외국인이라고 하나 이들의 존재는 불완전한 보호출산제 법안에서조차 고려되지 않았습니<sup>3</sup>.

그러나 문제 되는 보호출산제 법 조항만 개정한다고 영아 유기와 같은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아직도 보장되지 못한 임신 중지 접근성, 미혼모나 약자가 아이를 양육하기 너무도 어려운 사회문화적 환경, 낙인과 편견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산적한 문제를 외면한 채 보호출산제만 도입된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 앞에는 양육을 포기하거나 위탁하는 선택지만 놓이게 될 뿐입니다. UN아동권리위원회는 병원에서의 비밀출산제 도입 가능성을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했지만, 보호출산제는 너무도 빨리 통과되었습니다. ‘낙태죄’가 폐지된 지 3년이 다

3) (여성과 아동 모두를 보호하지 않는 보호출산제 제정법안을 둘러싼 현안과 과제) 국회 토론회 자료집(2023) 참고



\_ 임신중지 권리 진정 기자회견

되어가는데도 아직 임신중지 접근성이 보장되지 않은 것과 대비되는 속도입니다. 이 과정에서 '의명으로 양육 포기를 할 수 있으니, 임신했다면 일단 출산하기만 해라.'라는 메시지가 읽히는 것은 과장된 생각일까요?

한편, 보호출산제 통과와 함께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다시 논의되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들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에는 유산유도제 도입과 건강보험 적용 등 임신중지 접근성을 높이는 법안이 있는 반면, 의료인의 거부권 인정이나 임신중지 전 사전상담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 임신중지에 대한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법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이 일구어낸 '낙태죄' 폐지 이후 우리 사회는 더 이상 후퇴해서 안 됩니다. 빠르게 통과는 되었으나 영아 유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는 보호출산제에 대한 비판은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모자보건법 개정안 논의 역시 많은 관심과 날카로운 감시가 필요한 때입니다. ☹



전국성폭력상담소 2022 폭행협박없는 성폭력 통계분석

# 4,765건의 강간 상담이 들려준 이야기

오매 |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법과 제도는 사회의 인식 변화를 견인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현실의 성폭력을 담지 못하는 현행 '강간죄'의 구성 요건은  
하루빨리 정조의 침해라는 가부장적 시선에서 벗어나  
'동의여부'로 개정되어 성적 권리의 침해로 해석해야 합니다.*

“어떤 사례가 있나요?” 언론기자, 정부나 국회 관계자가 상담소에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죠. ‘사례’는 법, 정책 개정 필요 설득에서 가장 직접적 자료 중 하나입니다. 반대편에는 상담전화너머 피해자의 질문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상담해도 될…까요?” 현재의 법은 여전히 남성중심적이고 보수적이어서 피해자들이 겪는 실제의 성폭력을 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이하 전성협)는 2019년 71.4%의 강간 상담이 직접적 폭행과 협박 없이 발생했던 내용임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sup>1</sup> ‘강간죄’개정을 위한 연대회의가 처음 활동을 시작하면서 그 해 1-3월까지의 상담을 집계한 결과였습니다. 무려 70%가 넘는 성폭력이 현재 법이 외면하는, 폭행협박

1) 2019년 7월 9일 '강간죄'개정을 위한 연대회의 2차 의견서 <https://change297.tistory.com/6>

이 직접적으로 있지 않은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성폭력을 실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중에서 술이나 약물, 수면 상태를 이용하는 사건, 장애를 이용하는 사건은 어느 정도일까요? 불송치, 불기소 결정시 이를 어떻게 고려하고 있을까요? 좀 더 자세히 통계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2023년 4월 전성협 정책대응팀 10개 상담소 대표들은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안젤라홀에 모여 대규모 통계분석을 위한 입력틀을 만들었습니다. 수정보완, 테스트를 거쳐 전국 136개 전성협 상담소 중 119개(87.5%)가 참여한 통계분석이 여름에 이뤄졌습니다. 총 4,765건의 강간상담. 바쁜 업무 와중에 쉽지 않은 일이지요. 입력도, 수합도 말입니다. 전성협은 그동안 성폭력과 연결된 법 정책 제도 변화를 위해 자료생산, 연구협력, 의견개진에 열심이어 왔습니다. 형법상, 성폭력 법체계상 강간죄 판단기준의 변경은 오랫동안 상담현장에서 느껴온 필요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과제입니다. 그러니 쌓여온 ‘협업의 근육’이 발휘될 수밖에요.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2022년 강간상담 통계 결과 및 분석을 살펴볼까요<sup>2</sup>. 전체 4,765건 중 장애 있는 경우는 19.1%, 술·약물·수면에 의한 준강간은 29.4%를 차지합니다. 피·가해자 관계를 먼저 보지요. 아는 관계<sup>3</sup>(57.9%), 친밀한 관계(13.6%), 친족 친인척(10.2%), 모르는 사람(6.5%), 미파악 기타(11.8%) 순이었습니다. 세부항목 순위별로 보면 채팅상대자 12.8%, 동급생·선후배 12.4%, 단순대면인 11.4%, 직장관계자 10.3%, (전·현)애인 8.7% 순이었습니다.

2) 2022년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강간상담 통계 결과 및 분석은 2023년 7월 25일 국회에서 있었던 (21대 국회 토론회 : 폭행협박에서 동의여부로, 형법 297조 강간죄 구성요건 개정 쟁점과 과제) 토론회에서 나무(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님의 발제로 처음 공개되었고, 토론회 자료집에는 통계분석 결과 종합버전이 수록되어 있음(본문 하단 QR코드 참고).  
3) 친족, 친·인척, 친밀한 관계 이외 채팅상대자, 동급생 선후배 친구, 단순대면인, 직장관계자, 동네사람, 교사 강사, 서비스 제공자, 종교인, 복지시설 관계자, 의료인 등

폭행·협박으로 가볼까요. 직접적인 폭행·협박 있는 경우 20.7%, 없는 경우 62.5%, 미파악 16.8%였습니다. 2019년보다 다소 낮아졌으나 직접적인 폭행·협박 없는 강간은 여전히 높기만 합니다. 폭행·협박 있는/없는 경우 피·가해자 관계를 살펴봤습니다. 세부분류 중에는 채팅상대자가 가장 많았는데 채팅상대자의 경우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는 비율이 평균 19.1%보다 훨씬 높은 28.6%였습니다. 온라인에서 ‘여자들 흥런 치는 방법’, ‘술 마시고 강간하고 고소당하지 않는 법’ 등 성폭력 노하우 게시글을 떠올려보면 채팅상대자의 높은 비율, 그 중 장애있는 피해의 높은 비율을 추적하게 됩니다. 피·가해자 관계 중 동급생·선후배·친구, 단순대면인, 직장 관계자의 경우 ‘준강간’ 비율이 평균보다 훨씬 높습니다. 술·약물·수면 상태를 많이 이용하는 상황들입니다. (전·현)애인은 직접적 폭행·협박이 있는 경우가 평균 20.7%을 훨씬 상회하는 35.6%를 차지했습니다. 친밀한 관계여서 폭행·협박이 필요치 않았으나, 오히려 친밀한 관계여서 폭행·협박이 더 쉽게 동원되었습니다. 피해 당시 세부 상황도 살펴봤습니다. 주관식 응답집계는 자료 집을 꼭 참고해주시고요, 객관식 응답 순서는 강요 > 회유 > 지위 > 속임 > 그루밍 > 폭언 순이었습니다. 폭행·협박 없는 성폭력은 회유가, 장애 있는 성폭력은 강요와 회유가 비슷하게, 준강간은 강요가, 채팅상대자는 회유, 전·현애인은 강요, 친부모는 지위이용, 모르는 사람의 경우 속임이 가장 많았습니다.

집계된 것은 성폭력상담소 지원을 요청하는 상담들이었습니다. 이런 특성상 신고·고소한 비율 67.9%, 신고·고소하지 않은 비율 21.2%, 미파악 10.9%였습니다. 송치, 불송치, 불기소, 이의제기도 봤습니다(전체 강간상담 대비 기소율 24.7%, 신고·고소한 강간상담 대비 기소율 36.4%). 검경수사권 분리 결정 이전에 송치가 이루어진 사건도 있기에 다소 복잡했지만 찬찬히 짚어 불송치 571건, 불기소 197건에서 ‘이유’를 추렸습니다. 불송치는 폭행·협박 입증되



\_ 21대 국회 토론회 현장

지 않음 19.3%, 피해자 진술 신빙성 의심 17.6%, 불기소는 피해자 진술 신빙성 의심 18.4%, 폭행·협박 입증되지 않음 17.0%으로 두 이유가 가장 높습니다. 장애 있는 경우는 피해자 진술신빙성 의심이 26.0%로 높아졌습니다(불송치 이유 중). 피·가해자 관계로 보면 친족 친·인척은 상담 > 불송치 > 불기소로 갈수록 비율이 적어집니다. 그런데 (전·현)애인, 과거 배우자, 채팅상대자, 직장 관계자는 불송치, 불기소에서 비율이 점점 높아집니다. 친밀도가 높은 관계에 대해 불송치, 불기소 비율이 높은 것은 현실 성폭력에 대한 수사기관의 편견, 낮은 성인지 감수성과 수사의지를 드러냅니다.

법은 70년 전의 '정조에 관한 죄'의 이념과 기준 상태이지만, 성폭력 '문화'와 '구조'에 저항하는 이들은 지금, 여기의 성폭력을 알리고 이야기해야지요. 2024년에도 계속해보겠습니다. ☺



강간죄개정 국회 토론회(2023.7.25) 자료집 보러가기 ▶

## 답답한 세상, 우리는 혼자 아니니까

닷별 | 회원홍보팀 활동가



종종 상담소에서 일하는 것이 '운이 좋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페미니스트 동료들과 안전한 공간에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일상이  
 요즘같은 백래시 시대에는 쉽지 않으니깐요.  
 회원님의 하루는 어떨까요?  
 상담소는 회원님에게도 그런 공간이 되고 싶습니다.

올해는 회원홍보팀이 여는 회원 행사가 많은 해였습니다. 2년에 한 번 돌아오는 후원의밤 <페미본색>, 새롭게 시도해본 5년차 이하 후원회원 커뮤니티데이 <나만 그런 게 아니었어!>입니다. 둘 다 오신 분도, 하나만 참석하신 분도 계실텐데요, 두 행사를 담당하 담당자로서의 소회를 전해드립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참 답답한 소식이 많습니다. 서울시성평등지원센터가 '성소수자'와 '여성단체 행사'를 소개했다는 이유로 운영을 중단하게 되었고, 여성가족부 예산 삭감 이외에도 가슴 아픈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뉴스에 올라옵니다. 백래시는 심해지고 어떤 정치적 메세지도 와닿지 않는 심란한 2023년,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상담소를 처음 후원할 때 보내주신 '적어도 지금보다는 더 좋은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 속의 불꽃이 조금은 사그라들지 않으셨나요?

저야 답답한 세상에 대해 지치지 않고 이야기해줄 동료들이 바로 옆에 있지만, 세상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걸 잘 압니다. 그래서 올해 진행된 두 회원행사는 같은 목표를 두고 있어요. 페미니스트들이 자유롭게 웃고 떠들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보자! 기왕이면 그게 상담소면 좋겠다!

후원의밤 <페미본색>은 이름을 정할 때부터 수많은 토론을 거쳤습니다. 최종적으로 '페미본색'이라는 제목을 붙인 이유는, 안전하게 페미니스트 정체성을 드러낼 수 없는 사람들에게 '본색'을 드러내는 해방적 공간을 꾸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페미니스트들이 모여 신나게 웃고 떠드는 분들을 보니 준비팀의 목적은 초과달성한 것 같아요. 541분의 든든한 후원으로 목표 모금액수도 달성하였는데요,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상황리에 종료된 페미본색에 이어, 회원홍보팀의 야무진 계획을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바로, <나만 그런 게 아니었어>입니다. <나만 그런게 아니었어>는 상담소의 5년차 이하 후원회원들을 초대해서 지난 시간들을 추억해보는 행사였어요. 이꿈이 오지은님으로부터 'MBTI J 답게 무려 4부로 구성' 되었다는 평을 들은 이번 행사는 사실 페미본색의 연장선에서 준비한 행사입니다. 후원의밤 <페미본색>이 모두가 잘 지내고 있는지 각자의 존재를 확인하는 자리였다면, <나만 그런 게 아니었어>는 조금 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굵직한 사건들을 돌아보고, 그 시기의 '우리'가 어떤 생각과 경험을 했는지 나눠보는 구성으로 행사를 준비했어요.

이야기를 잘 이끌어 내려면 노련한 이꿈이들이 중요합니다. 상담소의 차분한 입담꾼, 여성주의상담팀 감이 활동가를 무사히 섭외하고 감이와 함께 알찬 2시간을 꾸려주실 분을 섭외했습니다. 준비팀 리더에 정말 여러 사람이 올랐는데요, 심사숙고를 거친 끝에 싱어송라이터 오지은 님에게 제안

을 드렸고 너무나 흔쾌히! 수락해 주셨어요. 마침 답답한 현실에서 이야기를 같이 나눌 사람이 필요하다는, 저희의 목표를 정확히 찌르는 이유로 수락의 답신을 보내주셨다고 해요.


상담소에 자원활동과 상근활동 양 쪽으로 오랜기간 활동해온 감이와, 아직 상담소를 후원하지 않지만 함 해볼까?! 고민하는 중인 오지은 님의 케미도 환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소문난 입담러 오지은 님의 빵빵 터지는 직격 발언이 백미였습니다.

행사 당일, 모닥불 앞에 둘러앉은 평화로움이 생각나는 캠핑의자와 귀여운 가랜드, 감성 넘치는 조명이 배치된 이안젤라홀은 평소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만큼 포근하고 따뜻했습니다. 맛있는 비건 식사와 기분에 따라 고를 수 있는 다섯 종류의 음료수와 함께 녹아내린 마음으로 시작한 본 행사는 상담소에 후원하게 된 계기를 시작으로, 노년이 된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보며 마무리되었습니다.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 사람은 가장 외로워집니다. 뉴스 헤드라인을 볼



\_ <나만 그렇게 아니었어> 현장

때마다 속이 콕 막히는 기분이 들지만, 나 혼자만 이런 생각을 하는 걸까봐 괴로운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상담소가 회원님의 고민을 모두 해결해드릴 수 있는 해결사는 아니지만, 답답한 마음을 나누고 같이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외로움을 슬쩍 덜어주는 든든한 뒷배가 될 수는 있어요. 다사다난한 올해,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즐거운 한 해 보내셨나요? 상담소와 함께한 2023년이 즐겁고 평화로웠길 기원합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나만 그런 게 아니었어!> 후원회원 양달의 후기 ▶



<나만 그런 게 아니었어!> 활동가 동은의 후기 ▶









문기선, 문미정, 문박엘리, 문수연, 문윤경, 문재연, 문준희, 문지영, 문진오, 문혜인, 문혜준, 문효진, 문효진, 문희영, 민난주, 민정원, 민혜애, 박기민, 박나연, 박다위, 박다혜, 박명선, 박문정, 박미란, 박미선, 박미숙, 박미정, 박민아, 박민자, 박민주, 박민지, 박민지, 박민재, 박보영, 박보은, 박부진, 박상선, 박상훈, 박상희, 박서연, 박서인, 박서현, 박선영, 박선희, 박선희, 박선희, 박설희, 박성주, 박세민, 박세진, 박소라, 박소라, 박소라, 박소미, 박소연, 박소연, 박수경, 박수미, 박수민, 박수연, 박수용, 박수지, 박수진, 박숙미, 박순환, 박솔기, 박승호, 박아름, 박아름, 박아이린(Park Aileen), 박영진, 박윤림, 박유화, 박윤미, 박윤성, 박윤주, 박은미, 박은선, 박은지, 박은지, 박은진, 박은화, 박이수, 박인기, 박재문, 박재민, 박재하, 박정란, 박정순, 박정연, 박정은, 박정은, 박정화, 박정훈, 박정훈, 박정훈, 박준희, 박주영, 박준하, 박지연, 박지연, 박지연, 박지영, 박지원, 박지현, 박지현, 박지혜, 박지혜, 박진선, 박진희, 박진희, 박진희, 박창경, 박창진, 박조룡, 박한샘, 박한울, 박현달, 박현순, 박현이, 박현주, 박혜민, 박혜하, 박효린, 박희은, 박희정, 박희주, 반상환, 반순미, 반주영, 방영화, 방은재, 배경, 배도준, 배명진, 배샛별, 배성신, 배수현, 배소희, 배우미, 배자하, 배중수, 배진석, 배진영, 배하늘, 배현진, 배화정, 백경원, 백경훈, 백미록, 백세희, 백수미, 백인에, 백주연, 백지선, 백지연, 백현, 백희원, 변순임, 변승현, 변유경, 변주희, 변지은, 변필림, 복서희, 봉공인증개사사무소, 부성평, 서권일, 서명호, 서미란, 서미란, 서성진, 서순진, 서연희, 서영교, 서용완, 서원, 서윤슬, 서정민갑, 서장애, 서정표, 서정현, 서지은, 서진, 서현아, 서혜미, 서혜원, 서혜진, 서효원, 서희문, 석진주, 선우준, 선재희, 설연자, 성기원, 성연이, 성예당, 성현아, 성혜경, 세종교회, 소희성, 손경이, 손동근, 손명규, 손명진, 손미연, 손미정, 손민우, 손상열, 손소희, 손연성, 손우성, 손원일, 손유진, 손정민, 손준성, 손지민, 손차민, 송다은, 송병희, 송상민, 송수진, 송용원, 송유정, 송유진, 송은숙, 송진경, 송지영, 송차명, 송해주, 송해주, 신경숙, 신경혜, 신기훈, 신누리, 신다희, 신동현, 신명숙, 신민정, 신범식, 신상호, 신선, 신수아, 신아름, 신영미, 신우정, 신윤진, 신은재, 신정혜, 신정훈, 신중훈, 신지현, 신지혜, 신진, 신필규, 신한슬, 신현규, 신현주, 신혜림, 신혜미, 신혜수, 신혜은, 신희원, 심상희, 심선지, 심성보, 심승주, 심아영, 심은희, 심조원, 심혜린, 심혜림, 심효진, 썸스테이지, 안정훈, 안미향, 안민, 안병숙, 안보라, 안선민, 안소진, 안승연, 안원숙, 안윤정, 안은혜, 안재훈, 안재희, 안정규, 안재성, 안지희, 안철민, 안찬기, 안태희, 안현수, 안형운, 안희경, 양가야, 양기진, 양동민, 양민희, 양성욱, 양성은, 양수안나, 양유경, 양윤정, 양은혜, 양민희, 양창아, 양현경, 양현규, 양현규, 양효준, 어진희, 엄은지, 엄태진, 엄희수, 여은경, 여은진, 엄미지, 엄정신, 영실, 오경민, 오경희, 오병근, 오상민, 오선근, 오성훈, 오세희, 오수연, 오수진, 오수미, 오승민, 오승이, 오승준, 오연정, 오영일, 오윤하, 오은비, 오의정, 오재석, 오재형, 오정진, 오주연, 우성희, 우안영, 우원, 우윤지, 우준희, 우효상, 원경주, 원민정, 원서아, 원성혜, 원승경, 원찬희, 월드메디칼(고영국), 위은지, 위정윤, 유경미, 유다솜, 유민수, 유병준, 유보람, 유선진, 유세정, 유승규, 유승재, 유승진, 유승현, 유연정, 유영서, 유예리, 유인규, 유정수, 유정란, 유정호, 유준성, 유지아, 유지애, 유지혜, 유진, 윤희일, 유현미, 유현숙, 유현아, 유행하, 유혜진, 유희정, 윤경진, 윤다솜, 윤다정, 윤선우, 윤성빈, 윤성준, 윤성현, 윤소미, 윤소정, 윤소정, 윤소진, 윤수, 윤수련, 윤숙경, 윤승현, 윤애리, 윤양자, 윤연숙, 윤영란, 윤영수, 윤영숙, 윤영호, 윤용호, 윤자영, 윤장혁, 윤정선, 윤정원, 윤정희, 윤지연, 윤지연, 윤현아, 윤형실, 윤희정, 음선희, 이강이, 이긴정, 이경미, 이경숙, 이경숙, 이경은, 이경진, 이경희, 이경환, 이계형, 이계화, 이규리, 이규화, 이나연, 이나영, 이나연, 이남주, 이다은, 이도경, 이도영, 이도규, 이도규, 이도영, 이도원, 이도은, 이도현, 이명란, 이명숙, 이명신, 이명현, 이문주, 이미경, 이미란, 이미령, 이미정, 이미화, 이민아, 이민주, 이보미, 이보배, 이부덕, 이비현, 이산하, 이상미, 이상민, 이상용, 이상원, 이상진, 이상목, 이서연, 이사회, 이선영, 이선택, 이선혜, 이선호, 이선희, 이설화, 이성은, 이상인, 이성주, 이세린, 이세용, 이소림, 이소연, 이소영, 이소은, 이소현, 이수안, 이수연, 이수열, 이수정, 이수정, 이수지, 이수진, 이수진, 이수진, 이수진, 이수진, 이숙현, 이슬기, 이슬규, 이슬민, 이슬숙, 이슬용, 이슬준, 이슬진, 이아름, 이애리, 이어경, 이연정, 이연주, 이연주, 이연표, 이영미, 이영아, 이영주, 이영주, 이용준, 이유태, 이우원, 이원형, 이원홍, 이우미, 이우상, 이우진, 이우진, 이우진, 이우진, 이우진, 이윤경, 이윤선, 이윤정, 이윤희, 이윤희, 이은, 이은, 이은경, 이은미, 이은수, 이은심, 이은애, 이은주, 이은지, 이은호, 이은화, 이의종, 이자민, 이재원, 이재원, 이재원, 이재호, 이정민, 이정순, 이정아, 이정열, 이정은, 이정은, 이정은, 이정인, 이정희, 이종은, 이종은, 이종희, 이주영, 이주희, 이준기(박은혜), 이준범, 이준형, 이준호, 이준희, 이지민, 이지영, 이지영, 이지원, 이지윤, 이지은, 이지은, 이지인, 이지행, 이지현, 이지현, 이지혜, 이진희, 이진희, 이찰숙, 이창수, 이재영, 이층애, 이태희, 이하연, 이하영, 이하은, 이혜사랑, 이혜원, 이향실, 이현미, 이현수, 이현우, 이현정, 이현주, 이현주, 이혜경, 이혜경, 이혜란, 이혜연, 이혜연, 이혜정, 이혜정, 이혜진, 이혜지, 이혜진, 이혜진, 이호진, 이홍연, 이화진, 이화진, 이효린, 이희동, 이희섭, 이희수, 이희수, 이희진, 이희진, 이희아, 임건호, 임건호, 임건진, 임규정, 임금희, 임기택, 임서준, 임선민, 임성아, 임소희, 임수희, 임아영, 임예은, 임우주, 임유영, 임은규, 임은재, 임재덕, 임정옥, 임주희, 임지숙, 임지영, 임지현, 임진용, 임하나, 임효진, 임홍선, 임희윤, 장다혜, 장미정, 장보람, 장성연, 장성희, 장세령, 장세훈, 장수경, 장수영, 장수진, 장여경, 장영주, 장영아, 장예리, 장예지, 장윤정, 장윤성, 장은미, 장은재, 장은지, 장인혜, 장정윤, 장주영, 장지숙, 장진, 장재원, 장하나, 장혜윤, 장효정, 전누리, 전민주, 전병미, 전서래, 전소연, 전소영, 전수연, 전수지, 전아람, 전연배, 전영미,

전영민, 전영은, 전유경, 전유나, 전유미, 전은유, 전은재, 전재혁, 전정현, 전지현, 전현정, 전해영, 전화정, 전효주, 정경수, 정경애, 정경자, 정관식, 정광, 정광철, 정교화, 정규민, 정기영, 정나리, 정다솔, 정대린, 정각기, 정동연, 정두리, 정병화, 정문영, 정미사, 정민성, 정민이, 정보리, 정보배, 정복린, 정상순, 정서하, 정선영, 정선영, 정세미, 정소린, 정슬아, 정아, 정영지, 정연주, 정영미, 정영서, 정영애, 정예슬, 정유림, 정유린, 정유선, 정유선, 정윤경, 정윤지, 정은경, 정은영, 정인호, 정재영, 정재우, 정재욱, 정재하진은, 정정기, 정종인, 정준애, 정지아, 정지운, 정지은, 정지인, 정지현, 정지혜, 정지훈, 정진주, 정진화, 정초윤, 정현, 정현교, 정현우, 정혜슬, 정효정, 정희수, 조정오, 조계삼, 조규선, 조나단, 조동현, 조무호, 조민아, 조민우, 조서연, 조선주, 조성연, 조성현, 조성화, 조소연, 조소연, 조수연, 조연주, 조영선, 조영선, 조영식, 조영주, 조원영, 조유빈, 조유진, 조은샘, 조은숙, 조은율, 조은정, 조은희, 조인경, 조인석, 조인옥, 조일래, 조인춘, 조재연, 조재휘, 조주영, 조준희, 조준희, 조지연, 조지혜, 조진희, 조한이, 조한철, 조해송, 조해연, 조해정, 조현선, 조현우, 조현주, 조혜인, 조혜정, 조혜재, 좌유빈, 존존, 주광용, 주담기공소, 주병희, 주소현, 주식회사통보, 주호준, 지성엽, 지승경, 지오, 지인숙, 지주혜, 지현, 지혜민, 진새록, 차선주, 차성안, 차영선, 차현성, 차현영, 채단비, 채우리, 채우리, 채은혜, 채은하, 채원영, 채훈복, 천정아, 천정환, 최기영, 최강백, 최건호, 최경식, 최근우, 최금래, 최기영, 최다운, 최동석, 최란, 최미경, 최미림, 최미림, 최미림, 최미현, 최민아, 최민아, 최민우, 최민정, 최병훈, 최보름, 최보미, 최보영, 최보연, 최빛그림, 최서영, 최서윤, 최석우, 최성실, 최성호, 최세연, 최세진, 최소연, 최수민, 최수연, 최수진, 최숙희, 최아림, 최여정, 최연우, 최영미, 최영애, 최영애, 최영주, 최영지, 최옥성, 최용득, 최용석, 최원일, 최유경, 최윤수, 최윤정, 최윤정, 최은식, 최은연, 최은정, 최익진, 최인혁, 최재웅, 최정은, 최정택, 최준, 최준원, 최지연, 최지연, 최지연, 최지연, 최지은, 최지은, 최진안, 최진우, 최태순, 최한나, 최현정, 최현영, 최현정, 최혜란, 최혜린, 최혜연, 최효선, 최희범, 최희범, 추민주, 추상아, 추신미, 추정희, 추지연, 탁수정, 편진범, 표수성, 표혜림, 하나은, 하나영, 하름, 하승수, 하연수, 하예서, 하은주, 하종석, 하주신, 하주연, 하지수, 하지은, 하희정, 한기모, 한만천, 한문형, 한미화, 한민지, 한보경, 한보라, 한소광, 한수경, 한승진, 한승효, 한신복, 한아름, 한여신, 한영미, 한예림, 한예슬, 한유림, 한윤미, 한은희, 한이계영, 한일아, 한정민, 한준, 한지연, 한진영, 한채운, 한혜령, 한희정, 함경진, 함아름, 함진혁, 허진, 허민숙, 허신형, 허성준, 허신애, 허은주, 허이화, 허준석, 허지민, 허지연, 허지은, 허진아, 허재영, 허태균, 홍민지, 홍보연, 홍상희, 홍성미, 홍수진, 홍순기, 홍은정, 홍일신, 홍정우, 홍주은, 홍지수, 홍지은, 홍진경, 홍진옥, 홍찬숙, 홍현진, 황미선, 황보승태, 황서연, 황성기, 황성임, 황승원, 황승희, 황승호, 황에나, 황유미, 황정진, 황지상, 황지연, 황진선, 황효진, 황휘, LEE JO HYANG, oopiuu, WOO JOHN JONGKWAN(이상 1,540명)

**번치 않는 지지를 보내주시는 평생회원님들, 감사합니다.**

강단, 강대열, 강병득, 강장자, 강지연, 강진자, 고재영, 국제재단서울클럽, 김경현, 김명륜, 김미주, 김민정, 김소연, 김연경, 김유란, 김유엘, 김지은, 김윤일, 김효선, 김희정, 공지백토리, 나인신, 남우석, 노길음, 노다운, 목동 명성교회 청년부, 미씨유림, 박미란, 박성환, 박수진, 박아영, 박용순, 박인필, 박정은, 박종훈, 박지희, 박진우, 배경, 배정철, 변혜정, 복인혜, 송미현, 신상호, 안백린, 안현진, 양채원, 오주연, 원미선, 위트니스츠, 유정화, 윤지원, 이덕화, 이명선, 이명숙, 이문희, 이상화, 이영희, 이우영, 이우희, 이우영, 이혜사랑, 이현상, 임나영, 임미화, 임초롱, 임효진, 장경수, 장철우, 전현지, 정다희, 정대린, 정병중, 조인석, 조일래, 천수민, 최수진, 최유진, 최진주, 추미애, 하동호, 한전부녀회(이상 81명)

**생활인들에게 더 없이 큰 힘이 되어주시는 열림터 후원회원님들, 감사합니다.**

강문식, 강민혜, 강은재, 강지혜, 강혜주, 고병진, 고지현, 고진선, 고현경, 고화정, 고희선, 곽선하, 권태형, 권혜준, 금보경, 김광현, 김다미, 김다슬, 김다운, 김다연, 김도형, 김도희, 김동중, 김문주, 김미우, 김미진, 김민규, 김민성, 김민욱, 김복희, 김선아, 김선환, 김설아, 김소연, 김소현, 김수연, 김수연, 김수잔, 김수진, 김신아, 김아리, 김연수, 김연순, 김예리, 김원오, 김유리, 김유성, 김유숙, 김유엘, 김윤혜, 김이슬, 김정연, 김주연, 김지국, 김지민, 김지완, 김지연, 김지은, 김지혜, 김지혜, 김차연, 김태연, 김한결, 김해나, 김현지, 김현지, 김혜린, 김혜연, 김혜진, 김효진, 김희도, 나경미, 나유미, 남영미, 노승연, 노영미, 노유민, 노주희, 노희정, 동진한의원, 류수민, 류종현, 류환술, 목소희, 문다린, 문숙영, 문준희, 문재훈, 미씨유림, 민슬기, 민조현, 박계나, 박미나, 박미정, 박민정, 박상희, 박세종, 박소미, 박수민, 박아름, 박용순, 박인필, 박정수, 박정욱, 박종원, 박하린, 박현희, 박혜민, 박혜상, 박혜은, 배정원, 배진석, 백상준, 법무법인(유한) 지평, 서범원, 서영민, 서해인, 섬김교회, 성민주, 성세희, 손정은, 송민성, 송계희, 송지영, 송희원, 신경혜, 신보영, 신영미, 신용범, 심민희, 심현실, 안소연, 안호선, 양기진, 양윤희, 양주애, 양지애, 양혜연, 양지은, 여나을, 염정진, 오경은, 오민지, 오선호, 오연서, 오영일, 오정배, 오정희, 오희준, 원지혜, 위정윤, 유규민, 유길호, 유소리, 유예리, 유용석, 유정안, 유진영, 유형선, 유혜영, 윤여연, 윤영선, 윤채희,



윤하영, 윤희진, 이경선, 이경아, 이다은, 이다은, 이도경, 이도행, 이도희, 이명선, 이명희, 이미홍, 이보미, 이산하, 이산하, 이성이, 이수정, 이승혜, 이승희, 이어진, 이업지, 이연재, 이영주, 이옥영, 이윤주, 이은미, 이은정, 이은지, 이영숙, 이정인, 이정화, 이정효, 이종국, 이주란, 이주설, 이주영, 이주현, 이준용, 이지영, 이지예, 이지우, 이찬희, 이태복, 이해인, 이향신, 이향화, 이해림, 이해진, 이효은, 이희진, 임나영, 임병순, 임미영, 임소현, 임수현, 임윤정, 임은희, 임지연, 임지현, 장다혜, 장애순, 장주영, 장채원, 장희진, 전수인, 전순연, 전순유, 전승기, 전혜영, 정고은, 정다연, 정민석, 정선희, 정세미, 정은희, 장영수, 정은경, 정은혜, 정재용, 정정희, 정정희, 정지연, 정지연, 정진아, 정창수, 정하나, 정현주, 정효영, 조서영, 조영래, 조윤기, 조은희, 조종선, 조현아, 주혜명, 주혜정, 진보영, 최강현, 최민영, 최성희, 최수민, 최수연, 최유리, 최유림, 최윤미, 최익진, 최재용, 최정림, 최정인, 최정인, 추연정, 추지영, 표아림, 하상연,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교회, 한승용, 한예림, 허민숙, 허복옥, 허정수, 허정연, 허제량, 허지선, 홍난영, 홍상희, 홍윤기, 홍지수, 홍지안, 홍혜승, 황동하, 황상림, 황예림, 황은순, NG FAITH SHI EN(이상 298명)

**변화를 만들어가는 일시후원자분들, 감사합니다.**

(주)문학동네, 강봉구, 강소라, 고보미, 광민준, 광승현, 권다혜, 권주희, 권혁주, 김가영, 김경년, 김경숙, 김동진, 김명지, 김미현, 김민수, 김세원, 김수정, 김승주, 김신아, 김유나, 김유석, 김윤일, 김정인, 김정희림, 김주아, 김주원, 김지선, 김진영, 김태영, 김하얀, 김하영, 김현지, 김혜정, 김효주, 김후성, 풀잎스타리온, 나누리, 나정현, 나혜원, 남다현, 노규현, 노선아, 노윤타리온, 도서출판 마티, 디오브루잉주식회사, 류다솔, 류수민, 모기친구, 문광원, 문주영, 문혜영, 문혜영, 박다혜, 박신은, 박아름, 박정원, 박정은, 박재연, 박지연, 박지희, 박진영, 박현주, 박홍권, 배성민, 백미경, 배지터블이엔티, 벨, 보라색물결, 서석순, 성균관대학교심리학과(디지털성폭력연구팀), 성민영, 성신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세무법인리더스 강남지사, 수키도키, 신아라, 신중호, 신혜연, 아스타리온, 아스타리온, 아스타리온, 아스타리온, 아스타리온안쿠니, 양준혁, 엄지민, 연극팀 메두사, 연지선, 오은담, 위밋업스포츠, 유효정, 윤경진, 윤정원, 윤진수, 이도경, 이수현, 이숙연, 이승주, 이승훈, 이아현, 이예현, 이진영, 이현성, 이형찬, 이화용, 작은말하기미미감삼다, 작은별, 장민, 장예지, 장정수, 전미소, 전서연, 전제진, 전이슬, 전지나, 정경아, 정다혜, 정재희, 정지수, 정지연, 정진아, 정찬우, 조수진, 조아라, 조은별, 조은희, 조은희, 조일래, 조현석, 주식회사 시타, 지인영, 차성안, 차소민, 최란, 최상아, 최수민, 최아영, 최조은, 최지나, 최진규, 추상아, 테크앤아트 통번역, 프로젝트 빛, 핑크도마뱀 안쿠니, 하유미, 하종성, 한서연, 한신영, 한소망, 한소예, 한준희, 함나현, 해방이와 인문극회, 허윤민, 홍진영, 황수남, Astarion, Michael Choi, UK Online Giving Foundation(이상 158명)

**2023 후원의밤 <페미본색>에 힘을 보태주신 후원자분들, 감사합니다.**

(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사)한국여성민우회, (재)일본근성노동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 가족과성건강아동청소년상담소, 강남낙시, 강미선, 강민, 강슬, 강예은, 강유가람, 강은희, 강정은, 강재인, 강지수, 강현정, 고미경, 고병진, 고임숙, 고정남, 고현경, 공공운수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 공공운수노조 한국마사회지부, 공공운수노조 현장활동가회의,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길, 공혜원, 광상연, 구미진,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권김현영, 권나미, 권남표, 권정, 권혁주, 권혜진, 그린복에이전시, 기독교인회, 기원, 김가람, 김가영, 김가원, 김강, 김구, 김규원, 김나연, 김나혜, 김남희, 김다미, 김다은, 김동은, 김동현, 김동희, 김두나, 김명희, 김문주, 김미량, 김미순, 김미영, 김민문정, 김민아, 김민주, 김민희, 김보명, 김복연, 김분희, 김서연, 김서윤, 김성경, 김성이, 김성자, 김성희, 김세린, 김세연, 김세희, 김수아, 김수정, 김수진, 김수희, 김순남, 김승기, 김시현, 김신효정, 김애라, 김양은, 김여진, 김연정, 김연용, 김영재, 김영정, 김영화, 김예리, 김용선, 김원정, 김윤영, 김윤진, 김은솔, 김은실, 김은아, 김은호, 김인주, 김정아, 김정은, 김정자, 김정혜, 김정희원, 김주연, 김주은, 김주원, 김지선, 김지수, 김지윤, 김지은, 김지현, 김지형, 김진선, 김태옥, 김하나, 김향기, 김향지, 김현아, 김현지, 김현지, 김혜경, 김혜경, 김혜란, 김효영, 김효정, 나영, 남궁우연, 남미자, 남성이, 남지하, 노경란, 노길룡(노길용), 노노도 여성노동인권분과, 노미선, 노민정, 노주희, 노지은, 노하은, 더조은합동법률사무소, 류권우, 류덕재, 류정희, 류채연, 류해주, 류후남, 림보, 마인드브 상담센터, 마태영, 마현일, 문숙영, 문은영, 민경혜, 박규남, 박대성, 박명선, 박민우, 박민진, 박보미, 박봉정숙, 박부영, 박부진, 박상훈, 박서진, 박선영, 박선영, 박세진, 박세환, 박송현, 박수민, 박승희, 박아름, 박연숙, 박예은, 박윤숙, 박은주, 박은지, 박재민, 박정혜, 박지희, 박진, 박혜인, 박현이, 박혜림, 반성매대인권행동아름, 배근호, 배민경, 배복주, 배윤우, 배은경, 배지연, 배진경, 배재은, 배화정, 백미순, 백정아, 백지연, 백지혜, 백향숙, 법률사무소이제, 범무법민영, 범미혜, 변성경, 변윤정, 변은희, 부종옥, 비온뒤무지개재단, 사단법인 대한여한의사회, 사단법인 서울유권문화축제조직위원회, 사단법인

성북청년시민회, 생각비행, 서명숙,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서울여성노동자회,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서원, 서이안, 서정희, 서한울, 서혜진, 석윤미, 성기연, 성연이, 성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제어, 세부법인 리더스 강남지사, 세컨드윈드, 소라미, 손기할, 손미정, 손원영, 손은숙, 송란희, 송민지, 송요셉, 송유경, 송유진, 송인자, 송지은, 송지혜, 송환희, 송해나, 송해주, 시선심리상담센터, 신경아, 신미경, 신상숙, 신상하, 신은재, 신치, 신필규, 신현, 심성은, 심아영, 심에스터, 심희경, 아시아워민브릿지 두런두런, 안병용, 안선민, 안소정, 안정인, 안지희, 안현수, 양영희, 양현경, 양현아, 어쓰, 어효선, 언니네트워크, 엘리, 여성환경연대, 염미지, 오늘의풍경, 오보람, 오수연, 오승준, 오의정, 오정희, 오현주, 용윤신, 원민경, 원선아, 워밍업스포츠, 유가희, 유영, 유일영, 유지예, 유혜리, 유현미, 유화정, 윤가람, 윤경진, 윤나현, 윤다림, 윤미정, 윤석희, 윤선남, 윤선영, 윤소정, 윤수연, 윤영수, 윤자호, 윤정원, 윤희정, 은사자, 이가현, 이근명, 이경아, 이경환, 이광란, 이나래, 이나영, 이다정, 이도근, 이도이, 이래은, 이명란, 이명선, 이명숙, 이명화, 이목소희, 이미경, 이미정, 이민주, 이보라, 이상현, 이상화, 이서연, 이선민, 이세민, 이소연, 이소윤, 이소희, 이수정, 이슬기, 이승은, 이승희, 이안나, 이어진, 이어경, 이연주, 이영규, 이영학, 이영희, 이영희, 이예서, 이예진, 이원형, 이유민, 이유선, 이유상, 이윤정, 이윤정, 이은심, 이은아, 이은희, 이재정, 이정선, 이정인, 이종희, 이주희, 이준희, 이준호, 이준희, 이지원, 이지원, 이지은, 이진아, 이진희, 이찬울, 이하영, 이향심, 이현숙, 이현아, 이현의, 이혜경, 이혜민, 이호기, 이호연, 이화영,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재단사람, 임민희, 임병준, 임진경, 임효정, 장경민, 장기태, 장다혜, 장서연, 장수경, 장수림, 장애여성공감, 장애정, 장유민, 장윤경, 장은재, 장은혜, 장인혜, 장정민, 장필화, 장혜영, 장혜영, 전경숙,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연맹,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급속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인론노동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다정, 전민경, 전민주, 전순유, 전혜영, 정경애, 정다혜, 정대연, 정문교, 정민석, 정서민, 정소연, 정수연, 정승혜, 정신분석센터 관도, 정언미, 정은희, 정의석, 정지아, 정지은, 정장수, 정춘숙, 정충덕, 정혜선, 정혜진, 정희윤, 조복순, 조소연, 조아라, 조양희, 조윤희, 조은영, 조은희, 조장은, 조정민, 조주은, 조중신, 조현정, 조혜린, 조혜인, 주명희, 지은정, 진상, 정열, 차상안, 채현숙, 채혜린, 친승연, 친정환, 천주교성폭력상담소,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명동,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온, 최나눔, 최나은, 최난희, 최란, 최명숙, 최미진, 최민경, 최민정, 최보원, 최서로, 최수연, 최어진, 최연재, 최영애, 최원진, 최윤정, 최윤정, 최지나, 최현정, 최현진, 최혜린, 최효숙, 추상아(유혜인), 추정희, 추혜인, 카피플러스, 평등노동자회, 평화, 하은주, 한국계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노동안정보건연구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어성노동자회, 한국어성단체연합, 한국어성의전화, 한국어성정착연구소원,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서영, 한소망, 한소영, 한예슬, 한재운, 한혜린, 함경진, 해솔정신건강의학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허진, 허복옥, 허은주, 허재량, 허주영, 허준석, 허효정, 현지원, 홀리스행동, 홍민아, 홍보연, 홍한솔, 홍혜인, 황승주, 황정민, 황혜성, IW31, IW31슬기(이상 533명)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전체회원 일괄등록 안내】**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하실 수 있도록 한국성폭력상담소와 부설 연구소 울림, 부설 씬터 열림터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전체 회원을 일괄등록합니다. 등록을 원치 않으시는 회원님께서서는 상담소 또는 열림터로 연락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미납된 후원회비 재출금 안내】**

잔액 부족 등의 이유로 계좌에서 후원회비가 출금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월출금일 5일(은행 영업일 기준) 이후 1회 재출금을 시행합니다. 재출금 시에는 해당 월의 미납된 금액만이 출금되며, 익월에 미납된 금액이 합산되지는 않습니다.

**【후원회비 납부관련 문의 혹은 회원정보 (주소, 연락처, 이메일주소 등) 변경 방법】**

상담소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상담소 후원회원 회원정보 변경하기>를 참고하시면, 온라인으로 손쉽게 회원정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회원 문의: 닷벌, 산 / 02-338-2890-1 / f.member@sisters.or.kr  
 부설 씬터 열림터 회원 문의: 감이 / 02-338-3562 / yeolim@sisters.or.kr

# 흔한 기부

- { 상담소 }**
- 알 님의 상담소를 떠올리며 가져온 각종 간식거리와 복숭아
  - 백혜랑 님의 달콤고소 호두파이 한박스
  - 내담자 님의 바삭한 리아의 오븐 쿠키 3봉지
  - 박봉정숙 님의 공부하다 당 떨어질 때 생각나는 잿 구운 각종 빵
  - 김미진 님의 일본에서 날아온 달과자 한박스
  - 내담자 님의 영국에서 날아온 Tea
  - 이경환 님의 2대를 잇는 수제과자점 강성은명과 무궁화 세트
  - 경찰청 님의 추석맞이 건어물 세트
  - 감나무집 님의 얼얼만한 먹골배 한박스
  - 만두 님의 탱글탱글 사인머스켓 한박스
  - HJ 님의 간편한 스타벅스 톨체구스토 캡슐 한박스과 자꾸만 손이 가는 각종 주전부리
  - 민주주의기술학교 서진 님의 머리아플 땀 민트티 한 박스
  - 내담자 님의 활동가 활력 충전을 위한 피로회복 구루산
  - 토리 님의 불끈 힘나는 비건 견과음료 한박스
  - 허오영숙 님의 새콤달콤 맛있는 제주 노지 감귤 두박스
  - 연세대 간호학과 <여성건강수업> 교수님과 학생들 님의 피터팬 구움과자와 차세트
  - 동은 님의 출장가서 사 온 성심당 튀김소보루
  - 지리산 님의 국민 밥도둑 절갈, 무말랭이, 고들빼기 김치 한통씩
  - 이명숙 님의 역시 겨울에는 노지 감귤 두박스
  - 마이라 님의 스파이시한 핍킨 티와 핍킨 과자 3종
  - 파랑 님의 저 멀리 핀란드에서 챙겨온 무민식 계절향 티백 한박스
  - 규아 님의 지금까지 이런 토마토는 없었다, 스위프리 사과향 토마토 2kg
  - 유현미 님의 든든한 마음을 담은 스펀과 파운드 케이크
  - 짱구 할아버지 님의 향긋한 라오스 커피 분쇄 원두
  - 고금미 님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핸드드립 커피 한박스
  - 정명화 님의 찹지고 맛있는 발효빵
  - 상아 님의 교토에서 날아온 알록달록 쌀과자
  - 조미선 님의 겨울맞이 귀한 슈틀렌
  - 낙타 님의 스페인에서 날아온 기온팔펠 아르기닌
  - 내담자 님의 빨간 김치와 빨간 사과
  - 가을 님의 예쁘고 맛있는 두유럽미 크리스마스 두유쿠키세트
  - 현지원 님의 상큼 달달한 강정명화상단 제주 레드키위 한박스
  - 모두의 부엌 님의 정성 가득 유일무이 비건 초코케이크

- { 열림터 }**
- 사라 님의 또우리와 활동가를 위한 폭신한 파운드케이크 두박스
  - 은서 님의 활동가와 생활인들에게 나누고 싶어 산 과일선물세트와 빵 한 바가지
  - 망공 님의 입에서 녹아내리는 마카롱 한박스
  - 심심잡화점 최호선 님의 책 15권과 따뜻한 털모자, 털양말
  - 옥혜숙 님의 지인이 농사 지은 햅쌀 한 포대
  - 조보라 님의 문득 열림터가 생각나 나누어주시는 생리대 한 박스
  - 한국여성들의집 님의 쌀 10kg 6포대와 라면 두 박스
  - 주식회사 시타 님의 제로웨이스트 바디워시, 로션, 클렌저, 크림 1천 여개



## 2024년은 회원 소모임 풍년!

상담소는 올해 회원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과 더 자주, 더 재밌게, 더 힘차게 만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만들기로 했는데요. 먼저 코로나19를 지나며 잠잠해진 회원 소모임을 깨워봅시다.

월1회 여성주의 수다모임 <페미니스트 아무말대잔치>  
 수학문제풀기 소모임 <우리의 노력이 수(학)포(기)가 되지 않게>  
 페미니즘 책읽기 소모임 <월간 00수혈>  
 메신저 기반으로 활동하는 비정기모임 <합정동 길고양이 챙기기 소모임>

부담스럽지 않게 즐길 수 있도록 짧고 굵게 준비한  
 <수영하는 사람들>, <달리자! 페미>, <반려견 보호자 모임>,  
 <남아 키우는 페미니스트 양육자 모임>, <홀라댄스 배우기 소모임>  
 까지! (헤헷...)

그간 페미니스트 동료와 소소히 모이는 것에 갈증이 있었다면  
 한국성폭력상담소 홈페이지에 업로드될 소모임 공지를 눈여겨 봐주세요.  
 전화나 메일로 문의를 주시는 것도 대환영!입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후원회원을 찾습니다.

불안과 퇴행의 시대, 위험이 체감되는 시대.  
이번 갑진년 새해 소망으로 성평등을 빌어보시는 건 어떤가요?  
상담소의 후원회원이 되어, 그 소원을 현실로 함께 이뤄냅시다.

아직 후원회원이 아니라면 아래 QR에 접속해주시고,  
이미 후원회원으로 함께하고 계시다면 주변 사람에게 공유해주세요!  
회원님의 참여는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